

현안연구 2018-03-797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오재환 · 임호 · 박경옥

현안연구 2018-03-797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오재환	연구기획조정실 연구위원 제1장, 제2장 3절, 제3장, 제4장, 제6장
------	-----	---

공동연구	임호	경영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제2장 1절, 2절
------	----	------------------------------

	박경옥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제5장
--	-----	---------------------

연구지원	주선옥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원
------	-----	-------------

감수	황영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	----------------

요약

□ 연구개요 및 문화자원화에 대한 논의

- 서부산권의 인문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문화콘텐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의 활용 방안 모색
 - 시간적 범위 : 과거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서부산권(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가치 증진 방안 등
-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최근 도시 성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성'적, '질'적 성장을 중요하게 논의
 - 도시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문화에 대한 주목, 문화적 지역성에 대한 성찰, 지역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문화자원의 전략적 접근 역시 성장위주의 도시 개발이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문화자원은 세계성과 지역성 모두 발현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되는 것으로 지역의 자발성과 적극성으로 세계에 통용되고, 문화와 지역의 특수성이 녹아있는 자원으로서 잠재력을 지님
- 문화자원화의 도시정책적 의미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지역과 문화의 결합, 가치 창출

등으로 요약

- 생태, (인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자원화와 지역재생,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자산 가치 재창조, 문화자원을 활용한 풍요로운 일상의 삶 추구 등이 활발함

<표> 문화자원화 국내외 사례

유형	사례
장소와 공간 재창조형	① 콜로라도 강 박물관 ② 미시시피 강 박물관 ③ 영국의 타르카 트레일
자산가치 재창조형	① 런던의 템즈 강 페스티벌 ② 독일의 라인강 스토리텔링 ③ 광주시의 개비설화 부활
지역, 사람 중심형	① 수원시의 유무형의 복원과 주민역량 강화 ② 순천시의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가치 증진 ③ 전주시의 인문공감을 통한 지역의 재발견

□ 시민,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 서부산권 거주 지역민 800명(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각 200명씩)과 문화 관련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서부산권 인문 문화자산에 대한 인식,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2017년 9월 13일 ~ 9월 21일)
- (자산에 대한 인식) 자산에 대한 낮은 인지도, 자산에 대한 가치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 (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지역재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장

소자산 중점 활용, 자산의 충분한 파악 및 고유한 특성 살리기,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정책과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예산 확보, 지역 정체성과 가치 발굴 및 확산, 활용의 기본 방향 설정,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 (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생태, 마을, 생활상으로 대표되는 자산 활용의 가능성과 문화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식, 고유한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특성과 자산들 간 연계 필요성

□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활용’이란,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자산의 전략적인 활용(인프라조성, 공간문화사업, 문화콘텐츠, 축제, 상품 개발, 시민 교육 등)’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장소와 공간의 재창조, 자산가치 재창조, 지역, 사람 중심의 접근과 시민·전문가의 인식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 방안’을 제시
- 예시 1) 낙동강 문명사 박물관 건립
 - 거대한 낙동강의 문명사와 궤적을 담아내는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구축
 - 새로운 전시 및 아카이브 공간으로 시민들의 교육 및 새로운 지역 명소로서 서부산권 문화관광의 거점이자 랜드마크 역할 기대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확산

- 예시 2) 낙동이야기 길 조성
 - 4개구의 대표적 인문문화자산을 거점으로 설정한 공존(共存)·공락(共樂)길 조성
 - 사라진 나루터와 포구 복원, 낙동 이야기 길 책 발간 병행
 - 낙동강을 주제로 한 테마(예: 염전, 마을-강길-도로-문화자산 연계 등)로 타 길과 차별화되는 도시 안에 섬(Island)의 구현과 관광자원으로서 유일성 확보
- 예시 3) 팟캐스트(Podcast) 제작 ‘낙동서고’
 - 서부산권의 역사, 문화, 장소, 기억, 시설 등 자산에 얽힌 이야기를 디지털 문명에 맞게 제작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다양성을 부각시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의 유입 유도
 - 남녀노소 누구나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새로운 관광콘텐츠 생성
- 예시 4) 4개구 연합 축제 ‘낙동 뱃길따라 1300리’
 - 낙동강 줄기를 따라 이어진 을숙도-맥도-삼락-대저-화명 생태공원을 뱃길로 이어 연합축제 구성
 - 낙동강이라는 큰 줄기에서 각 구의 축제특성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발휘
 - 국내 유일의 축제로서 서부산권을 알리는데 핵심 역할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표적 축제로 성장기대
- 예시 5) 이야기의 콘텐츠화, 캐릭터, 공예 상품 개발
 - 이야기의 콘텐츠화(갈대밭 도깨비, 인어 이야기 등), 낙동이야기 길 캐릭터 상품개발(노직이, 소금장수 이야기 등), 재첩

공예 상품개발

- 지역적 정체성 회복과 보전, 복원, 융복합을 통한 콘텐츠 활용 제고
- 예시 6)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
 -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낙동강을 따라가는 문학기행, 낙동강의 음식문화 프로그램 등
 -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과 문화적 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회 마련 및 인문학적 소양 제고
- 이를 위해서는 인문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전문 인력의 활용 및 보전 방안 수립, 사업비 확보 등), 거버넌스형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행정협의회 차원의 통합적 운영과 활용 전략별 과제의 지속적 인 발굴 필요
 - 가치 공유 기반의 자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산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3. 연구의 흐름	2
제2장 문화자원화에 대한 논의	5
1.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	5
2. 지역문화자원의 전략적 접근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의 새로운 가능성	7
3.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이해	10
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개념과 의미	10
2) 주요 자산	12
제3장 국내외 사례	21
1. 유형별 분석	21
2. 시사점	31

제4장 시민, 전문가 설문 조사	33
1. 조사 개요	33
1) 조사 개요	33
2) 조사 내용	34
3) 응답자 특성	35
2. 주요 조사 결과	37
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식	37
2)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41
3)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48
3. 시사점	59
 제5장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61
1. 낙동강 문명사 박물관 건립	6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61
2) 추진내용	62
3) 기대효과	64
2. 낙동이야기 길 조성	65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65
2) 추진내용	66
3) 기대효과	71
3. 팟캐스트(Podcast) 제작 ‘낙동서고’	72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72
2) 추진내용	72
3) 기대효과	75

4. 4개구 연합 축제 ‘낙동 뱃길따라 1300리’	76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76
2) 추진내용	77
3) 기대효과	83
5. 이야기의 콘텐츠화, 캐릭터, 공예 상품 개발	8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84
2) 추진내용	84
3) 기대효과	88
6.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	88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88
2) 추진내용	89
3) 기대효과	9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1
1. 결론	91
1) 인문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91
2) 인문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노력	92
3) 거버넌스형 협력 체계 구축	93
2. 정책제언	94
1) 행정협의회 차원의 통합적 운영 필요	94
2) 활용 전략별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	95
 참고문헌	 96
 부록 : 설문지	 101

표 목차

<표 II-1> 문화자산(cultural asset)의 유형	9
<표 II-2> 주요 문화창작물	16
<표 IV-1> 조사 내용	34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의 흐름	3
<그림 II -1>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8
<그림 II -2>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특징과 가치	11
<그림 IV-1> 시민 응답자 특성 : 성별	35
<그림 IV-2> 시민 응답자 특성 : 연령	35
<그림 IV-3> 시민 응답자 특성 : 지역거주기간	36
<그림 IV-4> 전문가 응답자 특성 : 소속기관	36
<그림 IV-5> 전문가 응답자 특성 : 관련분야 근무연수	37
<그림 V-1> 국립생물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64
<그림 V-2> 일본 시코쿠 오펜로 순례길	67
<그림 V-3> 낙동이야기 길(안)	69
<그림 V-4> 도보 길을 통한 책 발간 사례	70
<그림 V-5> 팟캐스트 이미지	73
<그림 V-6> 서부산권 스탬프 관광 앱 이미지	74
<그림 V-7> 국내 통합축제 사례 이미지	76
<그림 V-8> 4개구 연합축제 구성(안)	82
<그림 V-9> 서부산권 구(區) 대표 캐릭터	85
<그림 V-10> 강을 주제로 한 캐릭터 사례	86
<그림 V-11> 재첩노리개	87

제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서부산권의 인문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문화콘텐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의 활용 방안 모색
 - 낙동강 유역의 역사, 문화적 기록과 서민 삶의 흔적 등 문화 자산 발굴에 따른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2016)’ 후속 연구
 - 도시의 미래와 지속가능을 위한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확장, 지역문화자원의 전략적 접근과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지역의 매력 가중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문화자산 활용 도모

2) 연구의 목적

- 지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을 통한 낙동강 연변의 지역적 가치 재발견 및 확산

2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바다와 더불어 낙동강을 중심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도모
- 발굴된 인문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체성 형성, 지역 가치 제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과거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서부산권(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가치 증진 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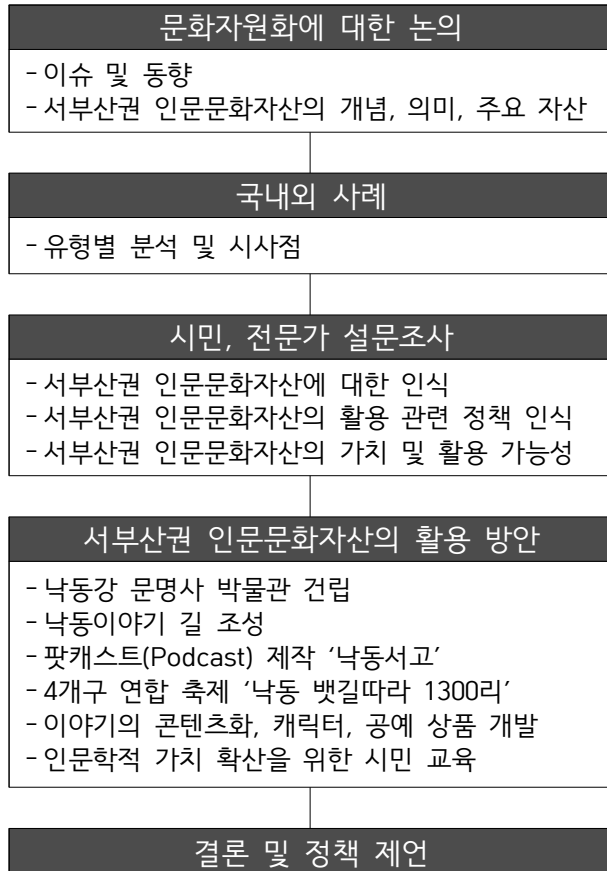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 사례 조사
- 설문 조사(시민, 전문가) 등

3. 연구의 흐름

- 낙동강을 포함한 서부산권 생태적 이점을 재발견하고, 관광,

- 인문학, 지역정체성 등 활용을 통한 지역 증진 도모
- 4개 자치구 지역협력 강화, 지역주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그림 I-1> 연구의 흐름

제 2장

문화자원화에 대한 논의

1.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

- 도시의 미래와 지속가능을 위한 지역문화에 대한 주목¹⁾, 문화적 지역성에 대한 성찰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
 - Meyrowitz(2004)는 글로컬리티(glocality) 즉, 결국 모든 경험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함(박찬욱, 2013: 5 재인용)
 -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의 가치관, 동질성, 연대성을 표현하는 기본토대로, 장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상황에 따라 긍·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정치·경제적 요소들과 긴밀하게 관련됨(박찬욱, 2013: 14)
 - 지역문화는 장소성, 고유성, 혼종성 등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며, local 영역에서 전개되면서 national, regional, global 영역과 영향을 주고 받는 ‘장(場)’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1) 지역문화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의 양상과 지역민으로서의 삶의 양상 모두를 포괄하여 자기정체성의 형성과 확인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강연호, 2011: 278)

6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 최근, 도시 성장은 하드웨어 중심보다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성적 성장이 중요한 화두임(이병민, 2016)
 - 세계화의 흐름 속에 도시는 ‘양’적 성장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이때 문화는 도시의 지속가능을 위한 핵심 자원이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문화적 기반의 재생, 도시 유산 보존, 도시 경관, 문화 및 창조 산업, 문화적 가치, 문화 다양성, 창조적 경제, 포용적 개발, 사회적 통합(응집, 결속),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다목적 이용, 전략적인 지역 거버넌스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함(HABITAT III, 2015)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지역과 문화의 결합, 가치 창출 등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의 문화적 이미지의 ‘강화’,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을 위한 접근(전영옥, 2004: 11), 도시 내부의 경쟁력으로서 도시 문화자산 혹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이 요구되고 있음(이병민, 2016: 53)
 - 특히, 지방 분권화 과정에 의해 촉발된 지역은 점점 더 영토 브랜딩 및 도시 재생 전략에서 핵심 자산으로 문화적 활용,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를 위한 도시 전략, 삶의 개선을 위한 지역적 노하우, 문화 인프라, 예술 및 문화 활동, 문화에 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이 강조됨
 -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 발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의 지역문화를 구축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음

2. 지역문화자원의 전략적 접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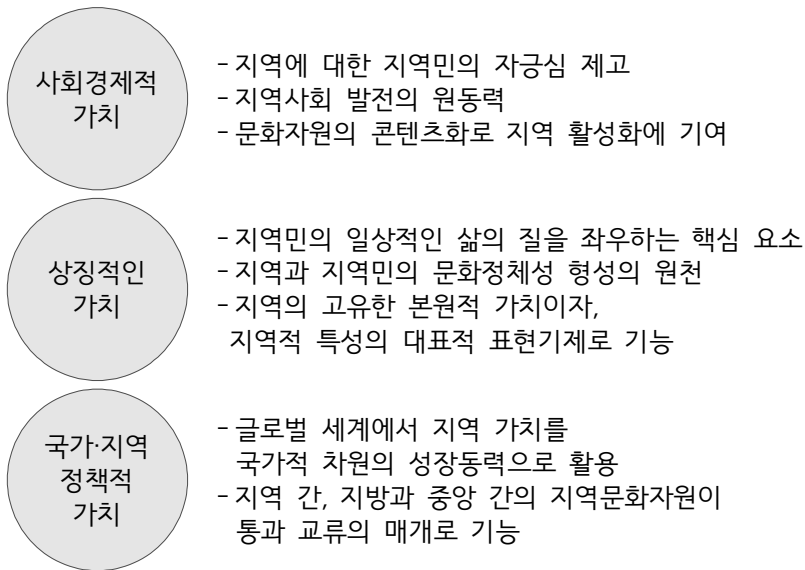
문화자산(cultural asset)의 새로운 가능성

- 지역문화자원은 세계성과 지역성 모두 발현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되는 것으로 지역의 자발성과 적극성으로 세계에 통용되고, 문화와 지역의 특수성이 녹아있는 자원으로서 잠재력을 지님
 - ‘문화’는 ‘보편적 생활양식, 심미적이거나 고상한 영역으로서의 예술적인 것,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것’을 포함하며, ‘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자원’이란 ‘지역을 한정하는 부분 공간 단위 안에서 구조적으로 독자성과 응집력을 지닌 지리, 역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내의 자원’이라고 정의됨(김면, 2016: 66)
 - 이러한 지역문화자원은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유·무형의 문화자원 발굴과 그 활용가치에 따라 문화 콘텐츠로서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적 인프라 구축, 지역이미지 개선, 문화산업과의 연계 등 논의가 활발함(전영옥, 2004)
- 지역문화자원의 전략적 접근은 성장위주의 도시 개발이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살기 좋은 자연 환경 조성, 문화를 통한 자연과 환경의 질적 향상,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녹색 도시에서 문화의 역할

8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을 활용하기 위한 행동의 실행, 지속가능한 도시를 장려하는 개발 의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도시 유산의 보존 등이 대표적임(UNESCO, 2016)

- 이러한 지역문화자산의 가치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서 ‘문화자산(cultural asset)’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정수희·이병민, 2016: 59)
 - 지역문화자산의 가치는 첫째, 사회경제적 가치, 둘째, 상징적인 가치, 셋째, 국가·지역 정책적 가치로 요약됨



<그림 II-1> 지역문화자산의 가치

- ‘문화자산(cultural asset)’이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문적 특성이나 물리적 사

물을 의미하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음(기윤환, 2011: 17)

- 지역문화자원의 전략적 접근이 확대되고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임
 -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문화자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세계와 공감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전통문화자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자산(asset)'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효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강화, 추가(도입), 생략될 수 있으며, 지역은 지역의 매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문화자산을 활용함(정수희·이병민, 2016: 59)

〈표 II -1〉 문화자산(cultural asset)의 유형

유형	세부분류		속성
문화원형	물리적 자산	문화재, 문화유산 등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 공유되어 온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1차적 문화자원
	비물리적 자산	이야기, 역사, 기술, 생활양식 등	
문화콘텐츠형	축제, 문화상품, 문화시설, 영상콘텐츠 등		지역의 문화원형 혹은 기타 자원을 반영, 활용하여 생산, 상품화된 2차적 문화자원

자료: 정수희·이병민(20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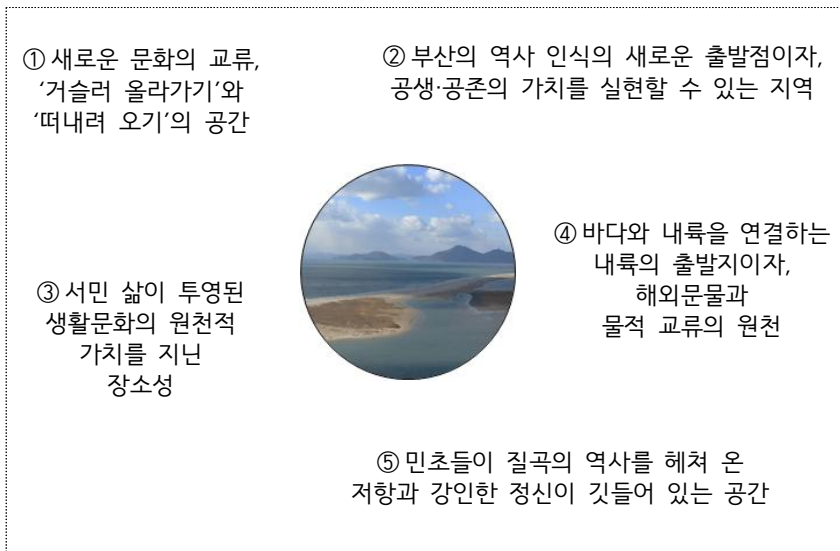
3.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이해 2)

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개념과 의미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은 ‘낙동강을 배경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시공간적 삶의 궤적을 기억하고, 기록한 역사, 문학, 장소, 이야기 등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로 확장할 수 있는 자원과 자산’을 의미함
 - 문화는 삶의 양식이라는 확장된 문화적 의미와 유사한 맥락을 가짐
 - 인문문화자산은 문화자산에 인문을 강조하여 개발하기보다는 보전과 융합적 의미가 강조되며, 자연과 생태적 환경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의 융합,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서 파생하는 인간의 상상력과 생산물 등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낙동강 하구지역을 공간으로 하고, 그 흐름에 따라 변화한 시간성을 담고 있는 역사와 공간, 사람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문화자산의 의미와 나아가 상상력을 더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인문문화자산으로 표현함
- 해양도시 부산의 낙동강은 부산의 역사 인식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공생·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임
 - 낙동강의 ‘거슬러 올라가기’와 ‘떠내려 오기’는 낙동강 유역 문화의 원형적 사유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임

2)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2016: 18-199) 일부를 재인용, 요약 정리함

- 서부산권 낙동강 유역의 공간적 특징은 서민의 삶이 투영된 생활문화의 원천적 가치를 지닌 장소성을 가짐
- 낙동강 유역의 농경문화, 어촌문화, 포구와 나루, 주막 등 서민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묻어 있음
- 물류와 산업의 중심으로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는 수운 및 산업생산지로 근대산업화의 상징적 공간
- 임진왜란기 대일 항쟁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가덕진성, 천성진성, 다대진성, 윤공단, 사상연구재단 등이 있으며, 일제하 소작쟁의, 구포 만세운동, 구포은행의 설립과 민족 교육의 산실인 학교 설립 등 저항의 역사를 간직한 곳임



<그림 II-2>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특징과 가치

2) 주요 자산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은 ‘역사자산’, ‘장소자산’, ‘시설자산’, ‘기억자산’, ‘생활자산’, ‘이미지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³⁾, 각각의 의미와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역사자산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산
 -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 장소자산 : 장소성을 지닌 공간 및 경관
 - 마을, 시장, 거리, 공원, 산림, 수환경, 농경지, 섬, 동굴, 보 호수, 기타
 - 시설자산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 주거, 생산·산업, 상업, 물류, 종교, 교육, 문화, 교통, 수리, 나루터 및 포구
 - 기억자산 :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행위·이야기 및 역사문화인물·커뮤니티 등
 - (문화창작물) 시, 소설, 사진, 대중가요, 영화
 - (인물) 기업가, 독립운동가, 종교인, 교육인, 문학가, 음악가, 사회운동가, 기타, 대표가문, 공동체 등
 - 생활자산 :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양식
 - 설화, 민요·민속, 당제, 생업활동
 - 이미지자산 : 지역고유의 정체성
 - 팔경 및 십경, 놀이 및 행사, 상징성

3) 서울시 미래유산(2013), 한상우·박기연(2010), 기운환(2011), 김형균 외 (201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부산권의 지역 고유의 인문문화자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정함

(1) 역사자산

- 역사자산의 특징은 불교문화, 호국정신, 진영, 군사유적 등으로 요약됨

북구



만덕사지

만덕사지
당간지주

구포왜성



구포동 당숲

...

사상구

운수사
대웅전사립명진학교
석주이명적
축제혜민비

냉정샘터

...

사하구



몰운대



윤공단

윤흥신
순절비응봉
봉수대

...

강서구

가덕도
척화비

천성진성

가덕도
등대이순신 장군
전적비

...

(2) 장소자산

- 장소자산의 특징은 마을, 시장, 거리, 공원, 산림, 수환경, 보호수 등으로 요약됨

북구					...
	구포 새장터	구포 만세거리	만덕고개	범방산	
사상구					...
	덕포 벽화마을	덕포장	재첩거리	학장천	
사하구					...
	감천 문화마을	사하 선셋로드	을숙도	송학산 억새군락	
강서구					...
	정거 생태마을	금수현 음악거리	대저 생태 공원	가덕도 대항인공동굴	

(3) 시설자산

- 시설자산의 특징은 주거, 생산·산업, 물류, 종교, 교육, 교통, 수리, 나루터 및 포구 등으로 요약됨

북구					...
	구포연합식품 국수공장	구포사립 구명학교	구포다리	감동진	
사상구					...
	국제상사	운수사	사립명진학교	사상역	
사하구					...
	임병진 가옥	감천 화력발전소	대티터널	하단포	
강서구					...
	대저1동 당리 일본식 가옥	명지 염전	녹산수문	낙동강 제방 (일천식)	

(4) 기억자산

- 문화창작물의 소재 및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북구 : 만덕사지, 구포시장, 구포국수, 구포다리, 구포독, 구포역 등
 - 사상구 : 운수사, 사상경찰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등
 - 사하구 : 다대포, 몰운대, 을숙도, 에덴공원, 낙동강 하구, 갈대, 하단 5일장 등
 - 강서구 : 낙동강, 염전, 칠점산, 가덕도, 녹산산업단지 등

〈표 II -2〉 주요 문화창작물

	주요 문화창작물
북구	시 구포선창(김중일), 재첩국 식당(성수자), 포팽나무(유병근), 구포독(홍정숙), 카인별곡-구포에서(조성래)... 소설 독메(김정한), 다시희망을-구포국수, 아름다운 숙자씨-구포시장(고금란), 낙동강(조명희) 대중가요 구포를 찾으세요, 눈물의 다리 영화 우아한 세계, 사생결단
사상구	시 운수사(이선형) 영화 오아시스, 사랑, 타짜...
사하구	시 다대포 일몰(최영철), 낙동강 하구언(강달수), 하단 오일장(김영옥), 에덴공원(이선희)... 소설 모래톱이야기(김정한), 젊은 날의 초상(이문열), 다대포에서 생긴일(조화유), 몰운대 새벽의 낙조(손정모)... 대중가요 다대포의 꿈(설운도), 다대포 처녀(이미자), 정다운 다대포구(김세레나), 을숙도(자유시인)... 영화 수, 마린보이, 슈퍼스타 감사용, 님은 먼곳에...
강서구	시 명호연연(허훈), 호포에서(유병근), 나그네(박목월), 대저를 지나며(김창익), 가덕도 가는 길(김형술)... 소설 식산집(이만부), 조풍설(정이오), 물이 되어-녹산 수문(주연)... 영화 성냥팔이소녀의 재림, 눈부신 날에...

○ 대표하는 인물은 다양한 분야와 삶을 보여줌

북구



윤상운
부산의 근대 개척



윤현진
임시정부 재정
책임진 풍운아



윤인구
부산대 웅비의
기틀 마련

...

사상구



김준옥(묘비)
낙동강 유도에
사람 살리는
'활인수' 심어



추송웅
한국
모노드라마
개척

...

사하구



윤흥신(순절비)
다대포의 수호신



양한나
여성운동, 봉사



강용권
지역민속 개척

...

강서구



이수강
'가덕인 청년회'
결성 독립운동



금수현
국민가곡
'그네'



박현서
향토색 짙은 작품
남긴 시인

...

(5) 생활자산

- 생활자산의 특징은 마을의 무사태평, 풍농·풍어의 기원, 노동요, 음식, 갈대, 염전 등으로 요약됨

북구					...
	시랑골 모분재	구포 장타령	구포 재첩잡이	구포국수를 만드는 사람들	
사상구	모라 뒷산 운수사와 두꺼비 바위, 고깃줄꾼의 노래, 성주풀이				...
		덕포동 상간선대 할배제당	박남용씨의 장어잡이 모습	배영희어르신 갈대빛자루 작업 모습	
사하구	천마산 용굴 전설, 신평동 망후촌, 신선암			다대포 멸치잡이, 낙동강 하구 하단 재첩양식, 갈대수공업, 염분(鹽分: 소금가마) 생산, 장림 김	...
		다대포 후리소리	재첩을 고르며 씻고 있는 모습		
강서구	네 바위 전설, 노적봉 전설			명지파, 김 양식, 염전 업(전오염)	...
		가락오광대	가덕도 송어잡이		

(6) 이미지자산

○ 이미지자산의 특징은 낙동강, 팔경, 축제, 낙조 등으로 요약됨

북구	구포대리지신밧기, 구포장터놀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구포장터 3.1만세운동			...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구포 감동진 별신굿	
사상구	(사상팔경) 구덕조무, 원포귀범, 평사낙안, 칠월해화, 팔월로화, 서산낙조, 운수모종, 금정명월			...
		서산낙조	사상 강변 축제	...
사하구	(다대팔경) 아미완월, 야망어창, 두송만취, 남림속하, 팔봉반조, 화손낙조, 삼도귀범, 물운관해			...
		물운관해	하단포구 응어축제	낙조
강서구	(강서팔경) 해강일점 노적봉, 동백군락 아동도, 삼십리방 낙동제, 죽도모연 오봉산, 포효무제 연대봉, 명월만산 보개산, 명사낙안 진우도, 성화례향 봉화산			...
		삼십리방 낙동제	대저 토마토 축제	낙동강 유채꽃

제 3장

국내외 사례

1. 유형별 분석

- 문화자원화 관련 유형별 국내외 사례 분석은 활용 방안과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됨
 - 본 연구에서는 장소와 공간 재창조형, 자산가치 재창조형, 지역, 사람 중심형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 (장소와 공간 재창조형) 강, 생태 관련 인프라 조성, 공간문화 사업 등
 - (자산가치 재창조형) 축제,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개발 등
 - (지역, 사람 중심형)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가능성 모색과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교육, 지역인문학 등을 통한 자산 발굴 및 활용
- 유형별 분석은 국내외 문화자원화 과정과 각 사례의 특징, 속성을 통해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차별화와 전략적 집중을 위한 것임
- 각 유형별 사례의 선정 기준은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 중심으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소와 공간 재창조형) ① 콜로라도 강 박물관(Colorado River Museum)

문화자원화 과정

- Colorado River Pioneers Historical Society는 Mohave 카운티와 계약하에 1991년 콜로라도 강 박물관을 운영하기 시작함
 - 박물관은 역사적인 사진, Journal of Arizona History 등 다양한 서적 및 출판물, 수년에 걸쳐 모인 잡지 및 신문 기사, 지역민들의 역사에 대한 글, 콜로라도 강과 데이비스 댐의 역사, 현재까지 선사 시대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자료 등 아카이빙을 통해 역사적인 사진, 문서, 기념품 등을 제공함
 - 박물관 부지에는 오래된 캐서린 금광과 광산 장비의 복제물이 있으며, 사진, 디오라마 및 전시물을 통해 콜로라도 강에서의 증기선, 금은 및 은 채광, 목장, 역사적인 길과 미국 원주민 역사에서 볼 헤드 시티(Bullhead City) 지역의 역사를 망라하여 보여줌
- *콜로라도 강(Colorado River, 길이 2,330km, 유역 면적 5,900km²) : 미국 남서부 로키 산맥의 서쪽에 있는 콜로라도 대지가 개석(開析)된 대협곡과, 와이오밍에서 시작되는 그린 강을 합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멕시코 북서부를 지나 코르테스 해(캘리포니아 만)으로 흘러들

특징

-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 봉사자는 박물관 관리부터 방문자 환영 인사까지 컴퓨터를 다루는 데 필요한 도우미로서 건축 및 조경을 유지 등의 역할을 함
- 한편, 볼 헤드 시티 파크(Bullhead City Park)의 콜로라도 강 유산 센터(Colorado River Heritage Centre)는 지역 사회의 풍부한 유산과 문화를 알기 위해 학교 어린이, 거주자 및 방문객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2015년 유산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콜로라도 강 박물관



콜로라도 강 유산 센터



자료: <http://coloradoriverhistoricalsociety.org>(2017년 10월 02일) ;
위키백과(검색일: 2017년 10월 02일).

(장소와 공간 재창조형) ② 미시시피 강 박물관(Mississippi River Museum)

문화자원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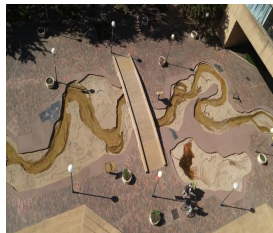
- 박물관은 미시시피 강의 하류에 있는 10,000년의 역사를 다루는 19개의 갤러리(탐사 및 정착, 미시시피에서의 교통, 강 유물 및 재해 연안, 강 공학, 남북 전쟁, 음악, 강의 방 등)로 구성됨
- 5,000여 점의 전시 유물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도구, 도자기에서부터 빅토리아 시대의 가구 및 20세기 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초기 계곡의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상세하게 설명함
- 관람객이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특한 설정으로 미시시피 강을 형상화한 리버 워크(River Walk)가 있으며, 이밖에도 자전거, 보트, 콘서트와 행사 등을 운영함
 - *미시시피 강(Mississippi River, 길이 6,210km) : 미국 중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미국 최대의 강으로 나일강·아마존강·양쯔강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길며, 미국의 50개주(州)에서 31개주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서스캐처원·앨버타 두 주의 일부까지 포함되는 국제하천
 - **리버 워크(River Walk) : 마이코 만에서 남쪽으로 954마일 떨어진 일리노이 카이로의 오하이오 강과의 합류 지점에서 흐르는 낮은 미시시피 강 모형으로 리버 워크를 따라 20개의 도시가 맵핑되며 강의 공학 구조를 보여줌

특징

- 학교 그룹 단위의 분야별 패키지 강좌 교육 및 레크레이션을 통해 미시시피 강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에 대한 탐험을 할 수 있도록 함
(예: 셀프 가이드 미시시피 리버 워크 투어 교사, 보트의 가상 타임 라인 경험, 강, 역사, 과학, 지질학 및 지도 읽기 기술 등의 실외 교육, 미 남북 전쟁 기간에 미시시피 강의 전략적 중요성 등)
- 문화예술 작품 등 비상시적 전시를 함께 병행함
(예: 문화의 눈-캐나다의 예술 작품)



미시시피 강 공원 및 박물관



리버 워크



전시 모습

자료: <http://www.mudisland.com>(2017년 10월 02일) ;
두산백과(2017년 09월 26일) ; 위키백과(2017년 10월 02일).

(장소와 공간 재창조형) ③ 영국의 타르카 트레일(Tarka Trail)

문화자원화 과정

- 타르카 트레일은 자연 및 생태, 문화자원 등을 탐방하기 위해 영국 남서쪽의 국립공원(엑스머, 다투머)과 해안(데본)의 산촌지역에 조성됨
- 반스테이플을 중심으로 소설 ‘타르카의 수탈’ 작품 배경을 따라 도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부구간은 폐선 철로를 이용하여 만들
- 야생, 자연 및 고유성 보호, 관광, 휴양증진 등을 조성방향으로 동·식물, 중세 문명 및 유적 등 해설프로그램을 제공함
- 트레일의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우거진 강 계곡, 향야의 땅, 해안 절벽 및 모래 사장을 포함한 다양한 풍경을 포함함

특징

- 워커, 라이더,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유형의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탐방 노선을 제공함
- 타르카 트레일 오디오(각 녹음은 특정장소와 일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번호가 매겨진 게시물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오디오 클립을 듣고 타르카 트레일의 야생 동물, 역사 및 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함
- 유익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위해 트레일의 표면 상태, 인근 주차장 시설, 지역 사이클 주기 사업, 도보(bridleways), 공중 화장실, 카페 및 레스토랑 등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및 관련 정보를 가이드북을 통해 제공함
- 디지털 사진 공모전(2017)을 통해 타르카 트레일의 자연경관,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을 함께 기억하도록 함
- 산책로는 인기있는 관광지이며, 탐방로 인근지역과 쇼핑, 숙박 등이 되어 있음



자전거 탐방 모습



타르카 트레일 오디오



가이드 북

자료: <http://www.tarkatrailguide.co.uk>(2017년 09월 28일) ;
김영준·박경열(2008).

(자산가치 재창조형) ① 런던의 템즈 강 페스티벌(Thames river festival)

문화자원화 과정

- 템즈 강 페스티벌은 1997년 템즈 강을 줄지어 횡단한 것으로 시작으로 1998년 제1회 템즈 강 축제 이후, 템즈 페스티벌 트러스트가 주최하고 런던시와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매년 축제의 주제를 달리 함
- 건강한 강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접근과 즐기는 것을 비전으로 강 관련 예술 및 교육, 유산 행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지역사회 및 환경을 만들고 홍보함으로써 모두에게 강과 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유와 인식 제고를 미션으로 함
- 그동안 317명의 세계적 아티스트와 1,261명의 영국 예술가, 182가지 주제별 노래 공연, 1,000만명의 관객 등의 참여를 통해 함께함

특징

- 어린이 합창단(Kids' Choir, 2003) : 런던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하나의 합창단을 꾸려 함께 노래하는 프로젝트로 해마다 런던 시내에 있는 13개 학교 혹은 15개 학교에서 온 약 600명의 학생들이 모여 페스티벌의 폐막일을 장식함
- 세계의 강(Rivers of the World, 2005) : 런던에 있는 36개의 학교와 해외에 있는 파트너 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강을 주제로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그림이나 회화, 사진 등으로 만들어 축제 기간에 전시, 29,4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전 세계의 강과 소통함
- 빅토리아 즉위, 60년 기념(Diamond Jubilee Celebrations) : 50개의 소형 선박, 보트, 바다 카약, 예인선 및 소방용 보트 등 빅토리아 즉위, 60년 기념 경축행사를 펼침
- 완전한 템즈(Totally Thames, 2014) : 런던의 강을 한 달간 새롭게 축하하기 위해 네덜란드 예술가 Florentijn Hofman의 Hippopo Thames라는 새로운 미술위원회와 100개의 강 관련 이벤트를 선보임



세계의 강
(2005)



빅토리아 즉위, 60년 기념
(2012)



완전한 템즈
(2014)

자료: <http://totallythames.org>(2017년 09월 28일) ; 이주빈(2013.09.21.).

(자산가치 재창조형) ② 독일의 라인강(Rhein River) 스토리텔링

문화자원화 과정

- 라인강(Rhein River) 중북부 지역은 작가, 예술가, 작곡가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준 곳으로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
-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사이 라인강(Rhein River) 중류 강기슭에 있는 133m의 바위인 ‘로렐라이’는 ‘요정의 바위’라는 뜻을 지님
- 고성 가도(만하임에서 네카어 강을 가로질러 뉘른베르크에 이르는 320km)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설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예: 로렐라이 전설)
- 로렐라이 언덕을 볼 수 있도록 풍경열차를 운영하며, 로렐라이 조각상 설치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음
 - *로렐라이 언덕을 맨 처음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은 라인강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요정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뱃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배가 물결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쳐 난파한다는 내용의 설화시(說話詩)로, 이것이 하이네, 아르헨도르프 등의 서정시로 이어지면서 전설이 되었으며, 하이네 작시, 질허 작곡의 민요로 더욱 유명함

특징

-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성을 존중하고 ‘로렐라이 전설’ 등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 라인강에 대한 특별한 인식과 감동을 선사함
- 로렐라이 언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유람선이 유유히 지나고 산과 강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쾰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과거와 현대가 상충하지 않는 형식의 개발방식을 고수함
- 이는 언덕마다 위치한 고성들을(개인의 별장이거나 호텔로 운영)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로렐라이 언덕에서 바라본 라인강 모습



로렐라이 조각상



로렐라이 조각상

자료: 금기용(2014: 47) ; 최혜실 외(2010: 168).

(자산가치 재창조형) ③ 광주시의 개비설화 부활

문화자원화 과정

- ‘동개비’는 KOCCA 지역 전통캐릭터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한 캐릭터로(2014) 광주 남구 양림동의 문화원형인 개비설화를 배경으로 함
-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스튜디오 피쉬하이커 제작)으로 KOCCA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됨(2015)
- 현재 광주 양림동에서 캐릭터관광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개비 관련 캐릭터상품 판매, 동화 구연, 동개비 홍보 동영상, 동개비 페이퍼 토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 남구관광청과 연계한 ‘근대예술 여행사업’, ‘문화의 날 행사 쌀롱드양림’ 프로그램을 진행함
- 2016 카툰커넥션, 2016 서울 SPP, 2016 서울캐릭터페어, 2016 광주에 이스페어, 2016 서울국제문구페어 등에 참가, 글로벌 관광브랜드로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동개비는 400년 전 조선시대 양림동에 살던 정엄이라는 선비가 길렀던 충견으로 한양에 있는 조정에 까지 문서수발을 다닐 정도로 영특했는데 한양에 다녀오던 길에 새끼 9마리를 출산, 새끼들을 한 마리씩 집에까지 물어 나르다 지쳐 죽자 이후 정엄 선비는 충직한 자신의 개를 위해 비석을 세움

특징

- 10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 광주 남구 양림동의 이야기를 광주라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의 문화원형소재, 설화로 작업, 동개비를 가장 기본적이지만 인색해져버린 인간의 본연의 감정을 전달하는 따뜻한 캐릭터로 표현함
- 400년 된 개비설화를 기반으로 한 동화책 내용은 개비 설화속의 개비 새끼 9마리 중 마지막 강아지가 호랑가시 요정들의 도움으로 시간의 문을 통과해, 400년 후의 우체부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고 지금의 편지를 배달하는 동개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재탄생됨
- 캐릭터의 시장 경쟁력, 제작과정의 특수성 등이 높이 평가됨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애니메이션 스틸컷



캐릭터 상품



동화 구연

자료: <http://koreancontent.kr/3089>(2017년 10월 05일) ;
<http://saygi.com/6760>(2017년 10월 05일).

(지역, 사람 중심형) ① 수원시의 유무형의 복원과 주민역량 강화

문화자원화 과정

- 수원시는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복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공동체 사업 700여 개를 시행하여 지역의 자생기반을 마련함
- 이후 2015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 주민들은 마중물사업비를 통해 스스로 주거환경과 상업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있음
-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은 ‘공유공동체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가지 사업을 수행함

특징

- 공동체 강화플랫폼 : 살기 편한 내 동네 만들기 사업, 공동체 성장기반조성사업, 팔달구노인복지관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수원형 행복주택 및 사랑방 건설 사업 등
- 문화창의의 플랫폼 :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조성사업, 문화재구역정비 및 관광편익시설조성사업,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운영사업, 함께 즐기는 수원화성문화재 사업 등
-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랫폼 : 행궁 어울림 장터 조성사업, 공유경제공장 조성 및 운영사업,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수원화성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한옥자재은행 조성사업 등
- 유무형의 복원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함께 추진하여 기억의 회복을 넘어 장소성과 장소애가 지역민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작동하도록 함
- 소모임 활동과 연계한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자산을 활용한 수원화성 재창조, 거점시설간 연계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상생경제 실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문화·산업 특화공간 조성 등이 강조됨



근린재생형 사업지 일대



행궁동 예술공간봄

자료: 김민(2017: 3-4) ; 박정훈(2016.05.12.) ; 천의현(2014.01.28.).

(지역, 사람 중심형) ② 순천시의 주민교육을 통한 지역가치 증진

문화자원화 과정

- 순천시 도시재생은 역사와의 만남, 지역 고유자산의 활용,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를 위해 주민교육, 주민공모, 창작예술촌, 정주여건 조성, 경관개선사업, 선도지역 테마거리, 부읍성상징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함
- 특히,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운영, 도시재생활동가를 육성함으로써 시민,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주민 공감 등을 강조함

특징

- 1기 교육대학(2014.02.27~03.31, 수료인원 25명) :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함양, 현장탐방을 통한 커뮤니티 매핑, 공간개발(탐방로, 관광 거점 등), 스토리텔링 개발 등
- 2기 교육대학(2014.08.11~09.16, 수료인원 45명)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의식 제고, 지역이해를 위한 현장답사(Cultural Community Mapping), 재생을 위한 융합자산 발굴(CCM), 가치사슬과 네트워킹(CCM), 프로그램 및 사업구상 등
- 3기 교육대학(2014.11.06~12.12, 수료인원 50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체계의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현장답사), 도시재생대학 작은 세미나, 가치사슬 및 네트워킹(유무형 프로그램 개발 모색), 최종 프로그램 개발 등
- 4기 교육대학(2015.04.07.~2015.05.13, 수료인원 40명) : 도시디자인, 경관, 환경/에너지, 리모델링 등
- 마을재생활동가 양성교육(2015.10.23.~12.17) :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협의체 재구성 및 활성화, 사업별 추진협의체 조직·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리더 양성, 선도지역 주민과 상인 등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마을재생활동가 육성 등



교육대학 수업현장



우리지역 역사강좌



도시재생 체험 활동

자료: <http://urc.sc.go.kr>(2017년 10월 05일) ; 노해섭(2015.02.16.).

(지역, 사람 중심형) ③ 전주시의 인문공감을 통한 지역의 재발견

문화자원화 과정

- 전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문주간'을 선포,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인문학 정책 실현, 다양한 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인문학, 인문학 소외계층 없는 따뜻한 인문학, 시민에게 상세한 인문학 정보 통합 제공, 인문학 자문단을 통한 전주인문학의 전문성 제고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인문도시 전주를 위해 '일상의 인문학', '나눔 인문학', '책 읽는 인문학', '온·다라 인문학' 등을 운영함
- 각 권역별 평생학습기관들과 연계한 인문강좌 및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재능기부 등 인성 중심의 전주 인문학을 육성 중에 있으며,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온·다라 인문도시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음
- 거점 도서관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람, 생태, 문화 강의 등을 진행하고 독서마라톤대회,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문화한마당, 길 위의 인문학, 북스타트운동 등 인문교육 등을 진행함
- 전주인문학 365로고 상표출원(2015.10.16.),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제정(2016.07.15.),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5년 주기)을 수립·시행할 예정

특징

- 온다라 인문학(인문강좌, 인문주간, 인문체험) : 도란도란 사랑방 인문학, 청소년과 소설, 판소리 다섯마당 배우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 인문학, 독서운동 인문학, 현장중심 인문학 등
- 열린시민강좌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다양한 분야의 작가 등을 초청, 배움의 기회 제공과 참여를 통해 열린교육의 장(場)을 마련함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지역 인문자산을 공동 발굴하고, 시민들이 전주의 역사, 문화, 정신, 예술 등을 마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한옥으로 배우는 전주



전주의 고지도 길을 따라서



노래로 배우는 전주 역사

자료: 전주시청 ; <http://blog.naver.com/jjondara>(2017년 10월 05일).

2. 시사점

- 생태, (인문)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자원화와 지역재생
 - 역사가 오래된 문명에는 강과 산,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자리 잡아 왔으며, 화려한 문명을 융성한 문화가 뒷받침함
 - 인문학적의 구성요소에 따라 지역재생 관점에서의 적용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文), 지역이 유지되어온 역사(史),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철학과 가치체계(哲)로 나타남(이병민·김기덕, 2014: 295)
 - 이런 맥락에서 강 관련 박물관, 생태 탐방길 등 장소와 공간 재창조의 대표 사례는 장소-시간-사회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산 가치의 공유와 회복,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자산 가치 재창조
 - 축제, 스토리텔링⁴⁾, 문화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사례는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토대를 기반으로 보존과 발전적 계승을 전제하고 있음
 - 이는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적 소재 등을 발굴하여 문화상품화를 시도하면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함
 - 창의적인 자산 가치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4) 스토리텔링은 시간적 연쇄에 따른 서사성을 갖는 이야기, 담화, 스토리를 포괄함(최석, 2008: 143)

- 문화자원을 활용한 풍요로운 일상의 삶 추구
 - 지역의 오래된 것에 대한 관심은 차별성의 출발점이자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강동진, 2013: 30)
 - 수원시, 순천시, 전주시로 대표되는 사례를 통해 ‘지역’, ‘사람’을 근본으로 ‘삶의 질’, ‘공감’, ‘주민공동체’, ‘주민역량’, ‘교육’, ‘자산의 공동 발굴 및 관리’ 등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문화자산을 통해 지역 정체성 형성과 지역민의 애郷심을 고취하는 유무형의 가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임
 - 이는 소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고 기획해낼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 도출된 대안들의 실질적인 추동력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맥락임(김영선, 2012: 143)

제 4장

시민,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식과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2) 조사 설계

○ 조사 방법

- 시민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
- 전문가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 대상

- 시민 : 서부산권 거주 지역민 800명(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각 200명씩)

34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 전문가 : 문화 관련 전문가 52명(공공/민간기관, 협회/단체, 교수, 연구원 등)

○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3일 ~ 9월 21일

(3)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척도분석을 실시함

2)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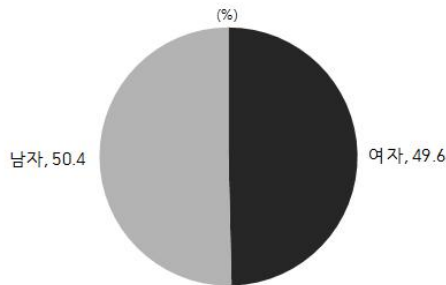
〈표 IV-1〉 조사 내용

구분	항목	시민	전문가
서부산권 인문문화 자산에 대한 인식	- 자산에 대한 인지도	0	
	- 자산의 문화콘텐츠화 정도	0	0
	- 자산 활용의 지역사회 영향정도	0	
	- 자산의 현재 발굴 정도/자산 활용정도/문화 콘텐츠 가능성		0
서부산권 인문문화 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 자산 활용 관련 정책 방향	0	0
	- 정책/사업의 중점 활용 자산	0	0
	- 정책 수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0	0
	- 자산 활용 위한 부산시 정책과제 중요도	0	0
서부산권 인문문화 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 서부산권 이미지	0	0
	- 자산의 가치 동의정도	0	0
	- 자산 활용 방향 동의정도	0	
	-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0	
	- 자산의 활용 가능성		0
	- 자산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	0	0
	- 서부산권 4개구 통합축제 개발에 대한 의견	0	0
	- 서부산권 4개구 통합축제 선호 주제/테마	0	0
	- 서부산권 4개구 통합축제 개발 반대 이유	0	0

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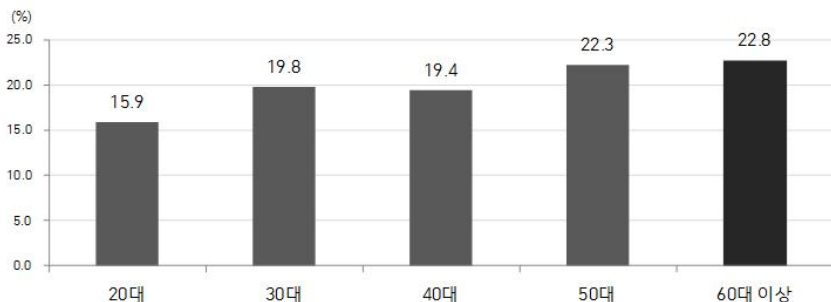
- (시민) 성별은 남자 50.4%, 여자 49.6%이며, 연령은 20대 15.9%, 30대 19.8%, 40대 19.4%, 50대 22.3%, 60대 22.8%의 분포를, 지역거주기간은 10년 미만 28.1%, 10~20년 미만 27.8%, 20~30년 미만 22.4%, 30년 이상 21.8%로 응답됨

(응답자 수 : 800명, 보기제시, 단위 : %)



<그림 IV-1> 시민 응답자 특성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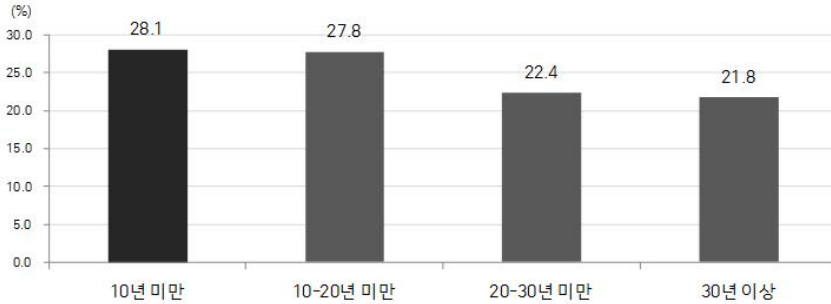
(응답자 수 : 800명, 보기제시, 단위 : %)



<그림 IV-2> 시민 응답자 특성 : 연령

36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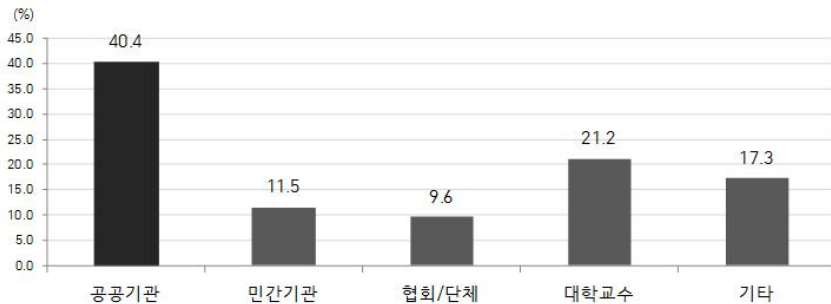
(응답자 수 : 800명, 보기제시, 단위 : %)



<그림 IV-3> 시민 응답자 특성 : 지역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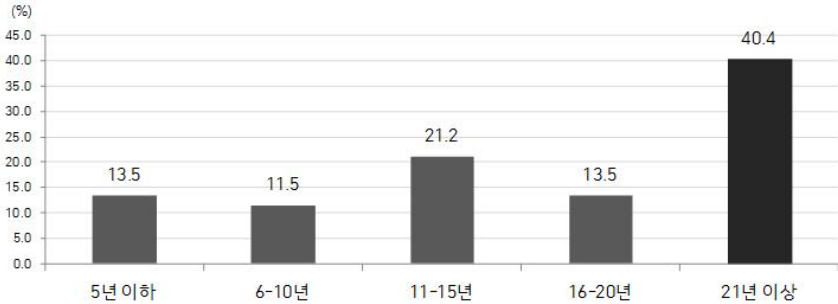
- (전문가) 소속기관은 공공기관 40.4%, 민간기관 11.5%, 협회/단체 9.6%, 대학교수 21.2%, 기타 17.3% 순으로 관련분야 근무연수는 5년 이하 13.5%, 6~10년 11.5%, 11~15년 21.2%, 16~20년 13.5%, 21년 이상 40.4%로 응답됨

(응답자 수 : 52명, 보기제시, 단위 : %)



<그림 IV-4> 전문가 응답자 특성 : 소속기관

(응답자 수 : 52명, 보기제시, 단위 : %)



<그림 IV-5> 전문가 응답자 특성 : 관련분야 근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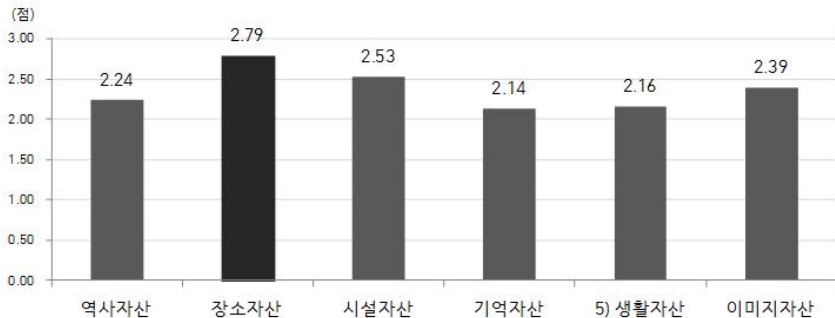
2. 주요 조사 결과

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식

(1) 자산에 대한 인지도 : 시민 응답

- 보통 미만으로 장소자산을 2.79점으로 가장 높게, 기억자산을 2.1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38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2) 자산의 문화콘텐츠화 정도 : 시민, 전문가 응답

- (시민) 보통 혹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임, 1점(매우 낮다) 4.9%, 2점 17.8%, 3점 30.5%, 4점(보통이다) 31.6%, 5점 11.9%, 6점 3.3%, 7점(매우 높다) 0.1%로, 전체 응답자의 74.0%가 보통(3+4+5점)이라고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낮은 편(1+2점) 22.6%, 높은 편(6+7점) 3.4%로 나타남

(응답자 수 : 800명, 7점 척도 평가, 단위 : %)

<7점 척도 평균 : 3.38점>



- (전문가) 보통 혹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임, 1점(매우 낮다) 5.8%, 2점 23.1%, 3점 42.3%, 4점(보통이다) 19.2%, 5점 3.8%, 6점 5.8%로, 전체 응답자의 65.4%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해서 보통(3+4+5점)이라고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낮은 편(1+2점) 28.8%, 높은 편(6+7점) 5.8%로 나타남

(응답자 수 : 52명, 7점 척도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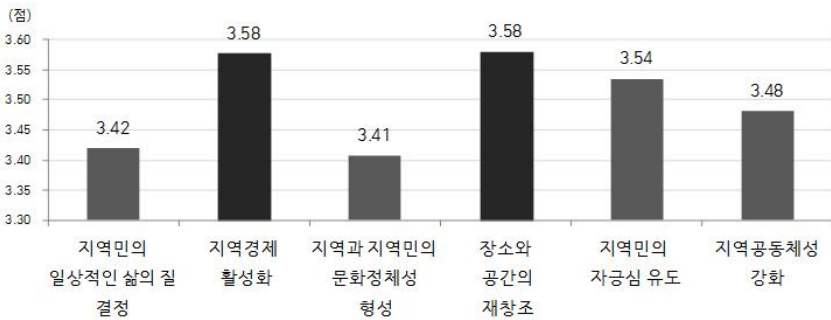
<7점 척도 평균 : 3.10점>



(3) 자산 활용의 지역사회 영향정도 : 시민 응답

-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소와 공간의 재창조를 각각 3.5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함
- 지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 결정 3.42점,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정체성 형성 3.41점, 지역민의 자긍심 유도 3.54점, 지역공동체성 강화 3.48점으로 평가함
- 전반적으로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이 지역사회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가깝게 평가된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장소와 공간을 재창조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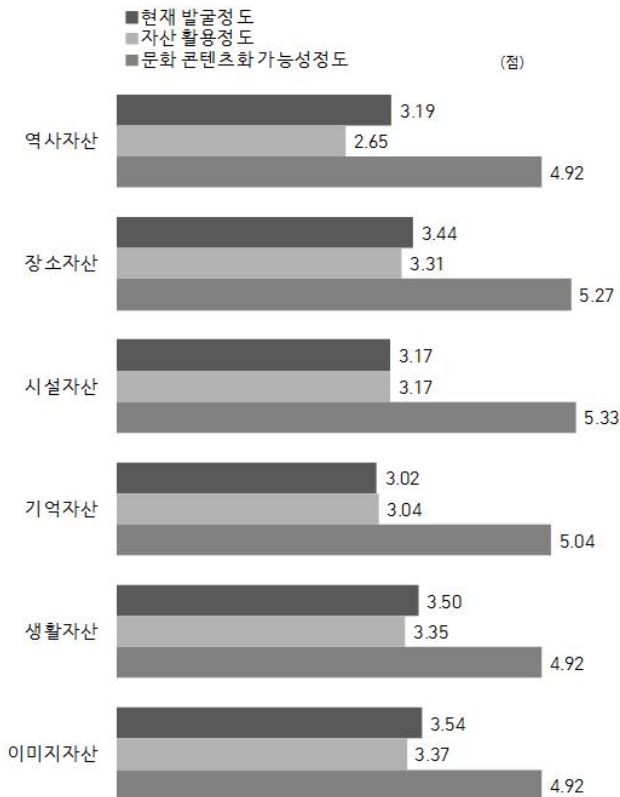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4) 자산의 현재 발굴 정도/자산 활용정도/문화콘텐츠 가능성 : 전문가 응답

- (현재 발굴 정도) 이미지자산 3.54점, 생활자산 3.50점, 장소자산 3.44점, 역사자산 3.19점, 시설자산 3.17점, 기억자산 3.02점 순으로 평가함
- (자산 활용정도) 이미지자산 3.37점, 생활자산 3.35점, 장소자산 3.31점, 시설자산 3.17점, 기억자산 3.04점, 역사자산 2.65점 순으로 평가함
- (문화콘텐츠 가능성) 시설자산 5.33점, 장소자산 5.27점, 기억자산 5.04점, 이미지자산 4.92점, 생활자산 4.92점, 역사자산 4.92점 순으로 평가함
- 전반적으로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현재 발굴정도와 자산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현재의 발굴정도와 자산 활용정도보다는 향후의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수 : 52명, 7점 척도 평가, 7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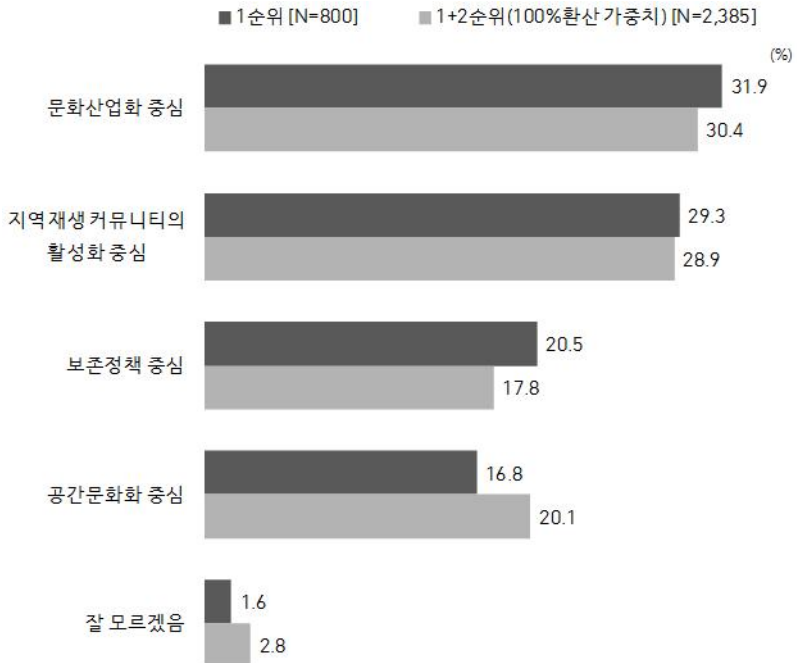


2)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1) 자산 활용 관련 정책 방향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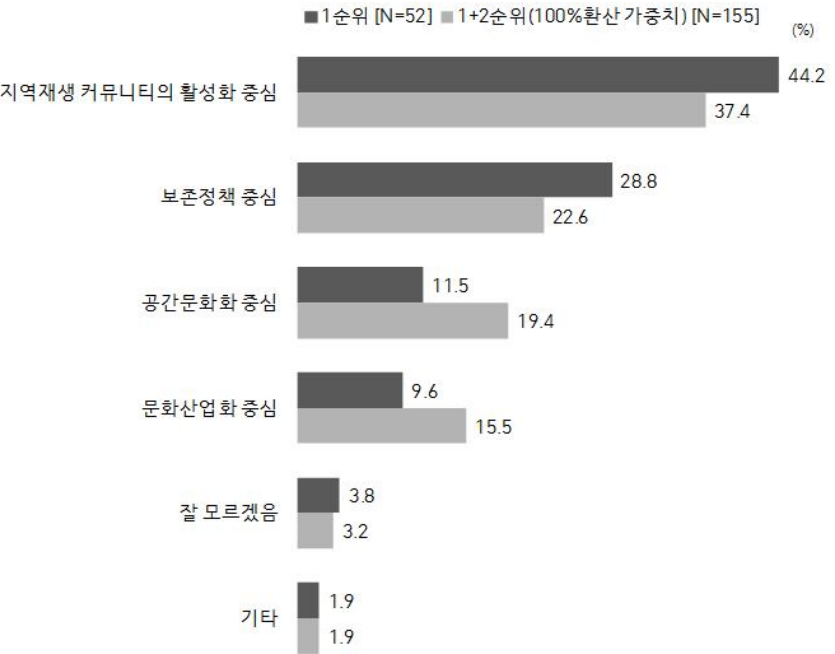
- (시민) 문화산업화 중심 31.9%, 지역재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중심 29.3% 순으로 인식함(1순위 응답 기준)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2, 2순위=1), 단위 : %)



- (전문가) 지역재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중심 44.2%, 보존정책 중심 28.8% 순으로 인식함(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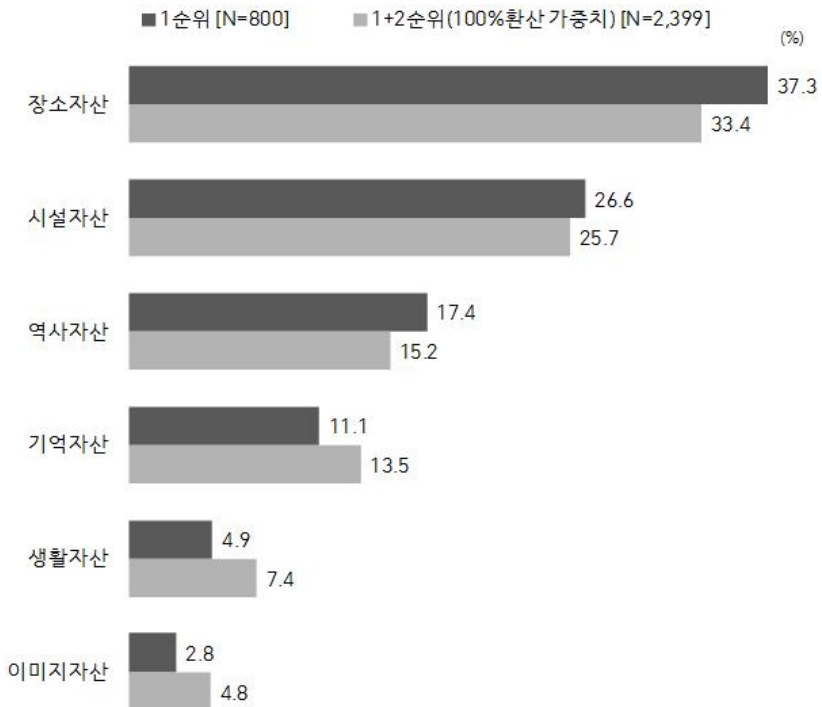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2, 2순위=1), 단위 : %)



(2) 정책/사업의 중점 활용 자산 : 시민, 전문가 응답

- (시민) 장소자산 37.3%, 시설자산 26.6%, 역사자산 17.4%, 기억자산 11.1% 순으로 인식함(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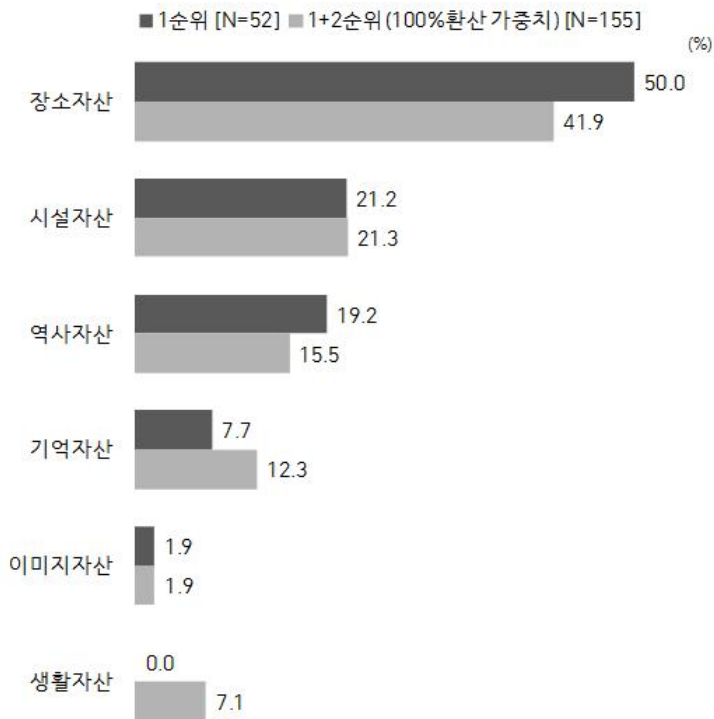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2, 2순위=1), 단위 : %)



44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 (전문가) 장소자산 50.0%, 시설자산 21.2%, 역사자산 19.2%, 기억자산 7.7%순으로 인식함(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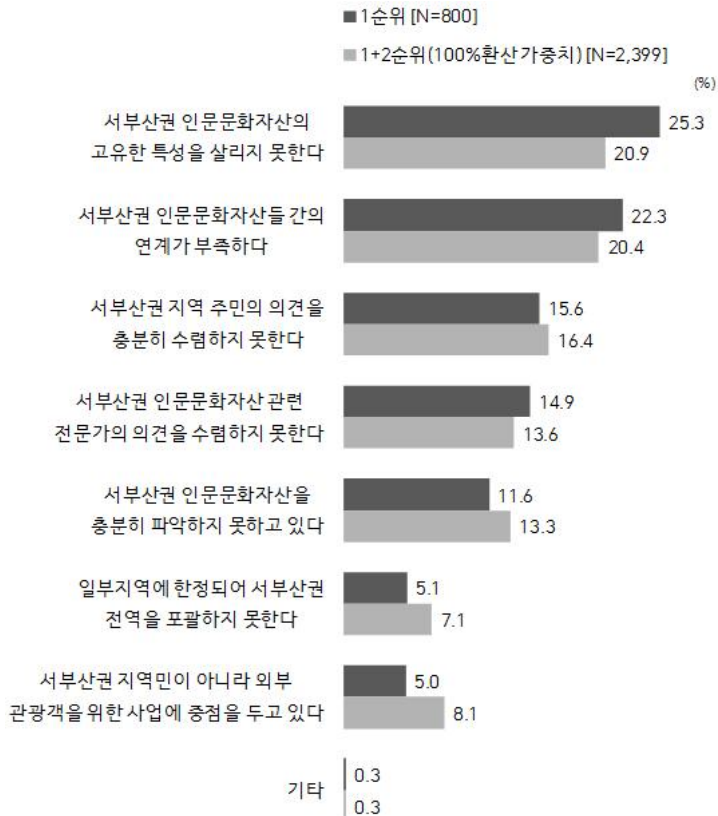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2, 2순위=1), 단위 : %)



(3) 정책 수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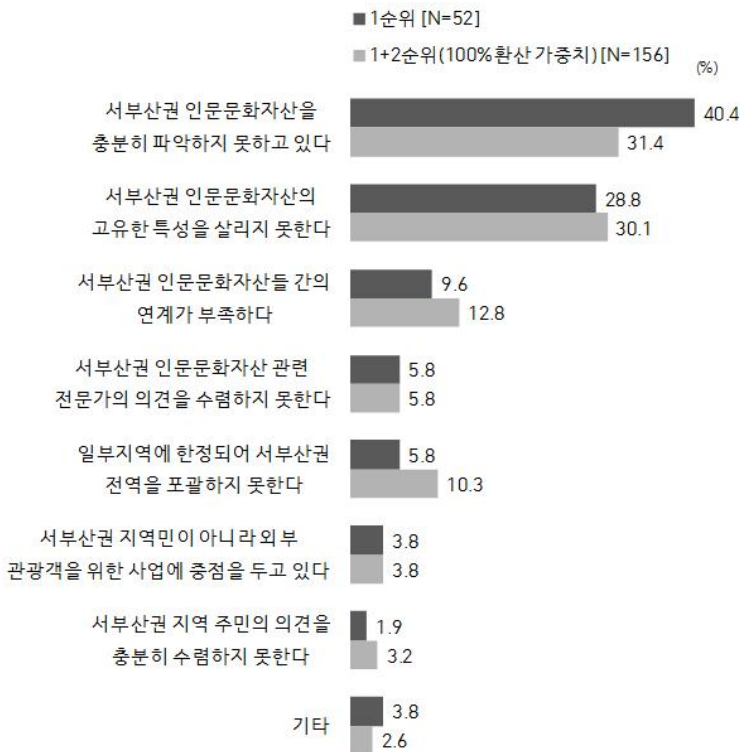
- (시민)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점과 인문문화자산들 간의 연계가 부족한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함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25.3%,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22.3%, 서부산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 15.6%,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 14.9%,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1.6%,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서부산권 전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5.1%, 서부산권 지역민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5.0%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응답 기준임)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2, 2순위=1), 단위 : %)



- (전문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과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함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0.4%,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28.8%,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9.6%,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 5.8%,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서부산권 전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5.8%, 서부산권 지역민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3.8%, 서부산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 1.9%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응답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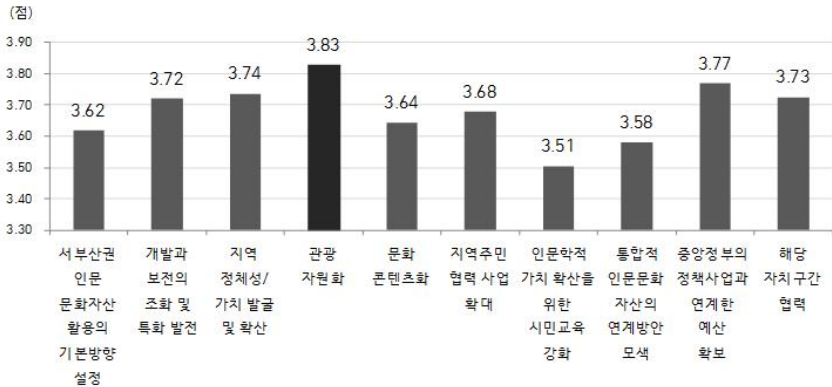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2, 2순위=1), 단위 : %)



(4) 자산 활용 위한 부산시 정책과제 중요도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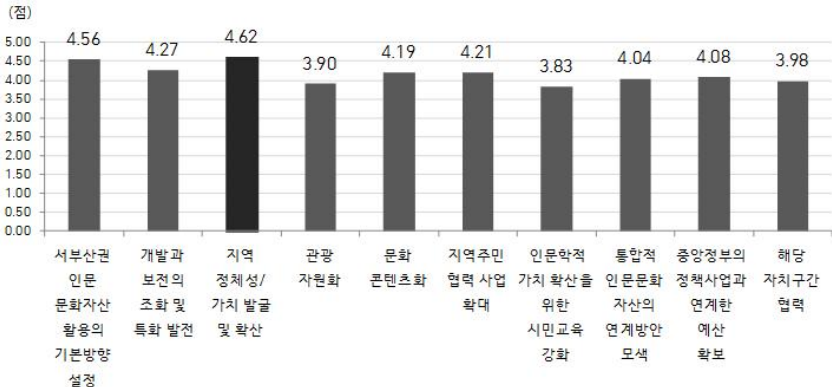
- (시민) 생태관광코스 및 이야기형 투어 개발 등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예산 확보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함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 (전문가)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제,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함

(응답자 수 : 52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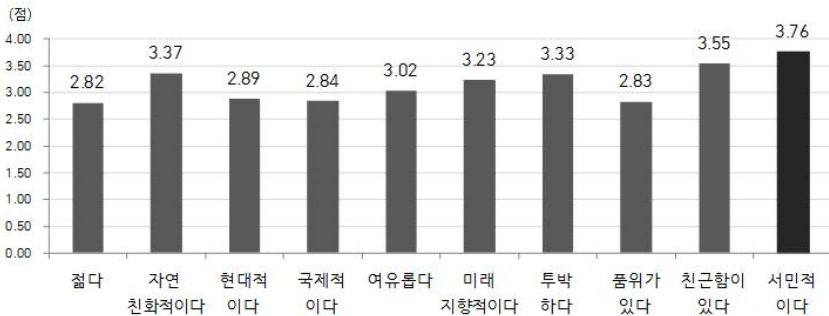


3)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1) 서부산권 이미지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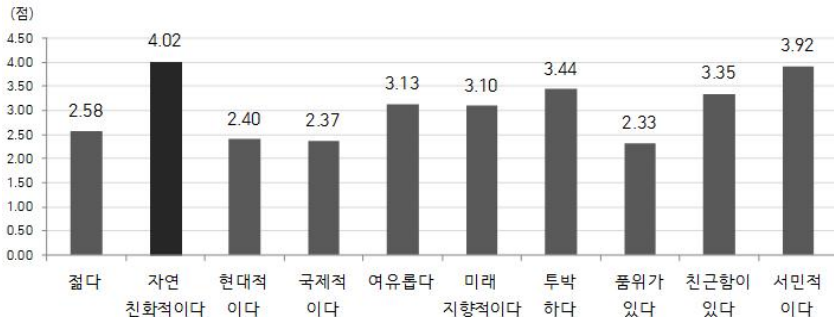
- (시민) 서민적이다 3.76점, 친근함이 있다 3.55점, 자연친화적이다 3.37점, 투박하다 3.33점, 미래지향적이다 3.23점, 여유롭다 3.02점, 현대적이다 2.89점, 국제적이다 2.84점, 품위가 있다 2.83점, 젊다 2.82점 순으로 인식함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 (전문가) 자연친화적이다 4.02점, 서민적이다 3.92점, 투박하다 3.44점, 친근함이 있다 3.35점, 여유롭다 3.13점, 미래지향적이다 3.10점, 젊다 2.58점, 현대적이다 2.40점, 국제적이다 2.37점, 품위가 있다 2.33점 순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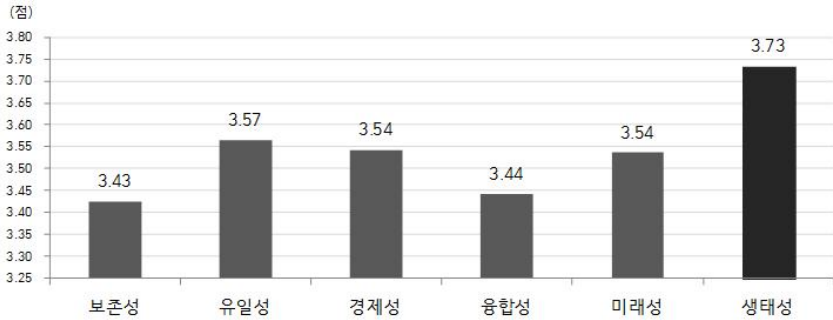
(응답자 수 : 52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2) 자산의 가치 동의정도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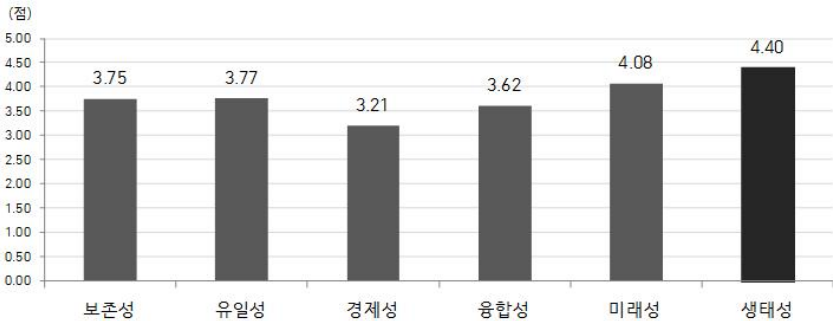
- (시민) 생태성 3.73점, 유일성 3.57점, 미래성 3.54점, 경제성 3.54점, 융합성 3.44점, 보존성 3.43점 순으로 동의함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 (전문가) 생태성 4.40점, 미래성 4.08점, 유일성 3.77점, 보존성 3.75점, 융합성 3.62점, 경제성 3.21점 순으로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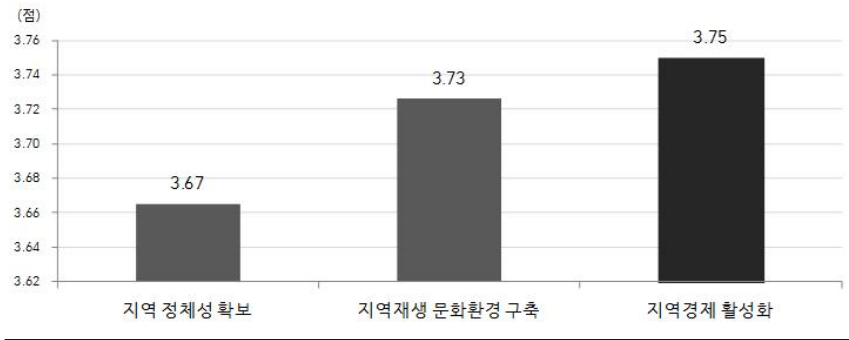
(응답자 수 : 52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3) 자산 활용 방향 동의정도 : 시민 응답

- 지역경제 활성화 3.75점,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3.73점, 지역 정체성 확보 3.67점 순으로 평가함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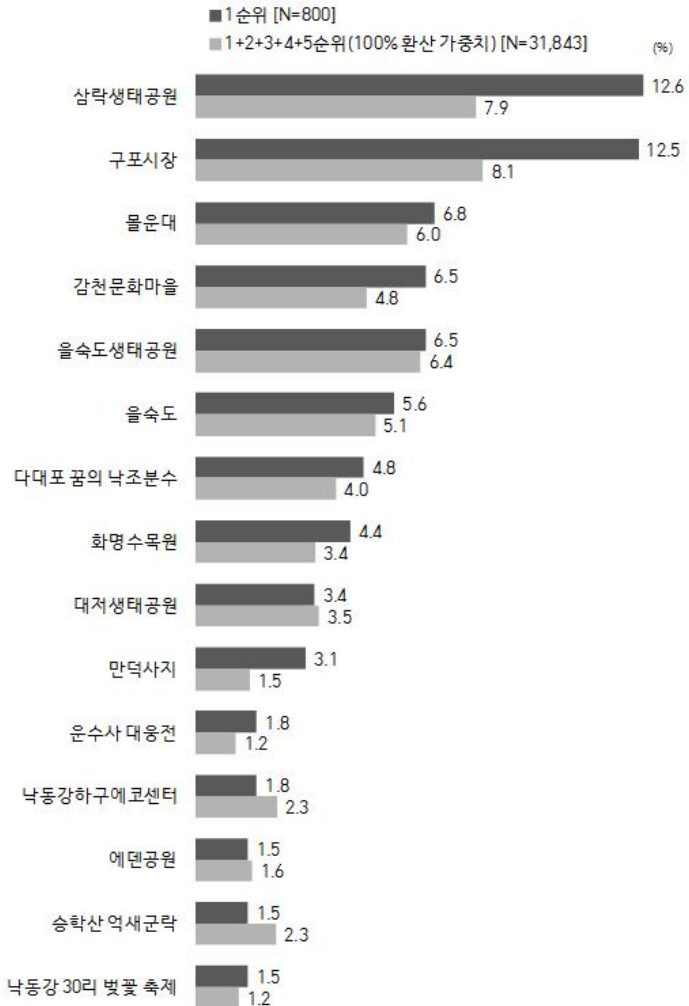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5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4)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 시민 응답

- 삼락생태공원 12.6%, 구포시장 12.5%, 물운대 6.8%, 감천문화마을 6.5%, 을숙도생태공원 6.5%, 을숙도 5.6%,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4.8%, 화명수목원 4.4%, 대저생태공원 3.4%, 만덕사지 3.1% 순으로 나타남(1순위 응답 기준임)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10, 2순위=9, 3순위=8, 4순위=7, 5순위=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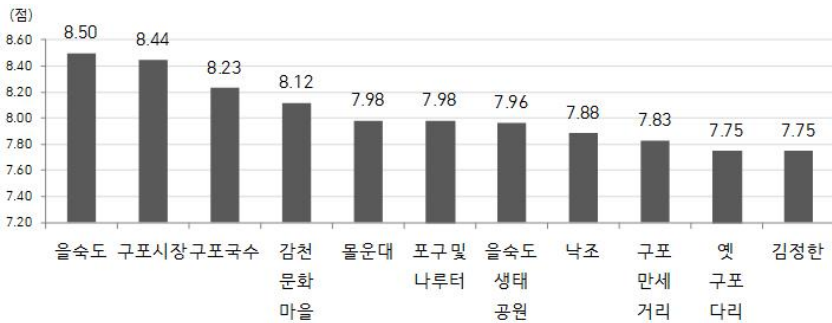


* 제시된 보기 중에서 1순위 응답비율 기준으로 1.5% 이상만 제시함

(5) 자산의 활용 가능성 : 전문가 응답

- (지역정체성 확보 관련) 을숙도 8.50점, 구포시장 8.44점, 구포국수 8.23점, 감천문화마을 8.12점, 물운대 7.98점, 포구 및 나루터 7.98점, 을숙도생태공원 7.96점, 낙조 7.88점, 구포만세거리 7.83점, 옛 구포다리 7.75점, 김정한 7.7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응답자 수 : 52명, 10점 척도 평가, 10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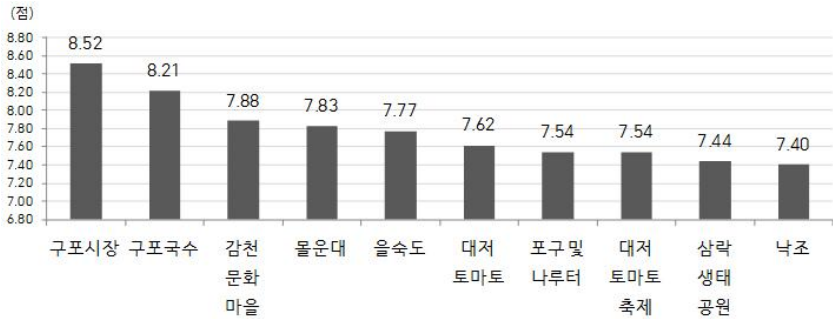
-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관련) 구포시장 8.21점, 을숙도 8.06점, 감천문화마을 7.98점, 물운대 7.90점, 구포국수 7.83점, 포구 및 나루터 7.83점, 을숙도생태공원 7.71점, 낙조 7.65점, 김정한 7.58점, 아미산전망대 7.5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응답자 수 : 52명, 10점 척도 평가, 10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구포시장 8.52점, 구포국수 8.21점, 감천문화마을 7.88점, 물운대 7.83점, 을숙도 7.77점, 대저 토마토 7.62점, 포구 및 나루터 7.54점, 대저 토마토축제 7.54점, 삼락생태공원 7.44점, 낙조 7.4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응답자 수 : 52명, 10점 척도 평가, 10점 척도 평균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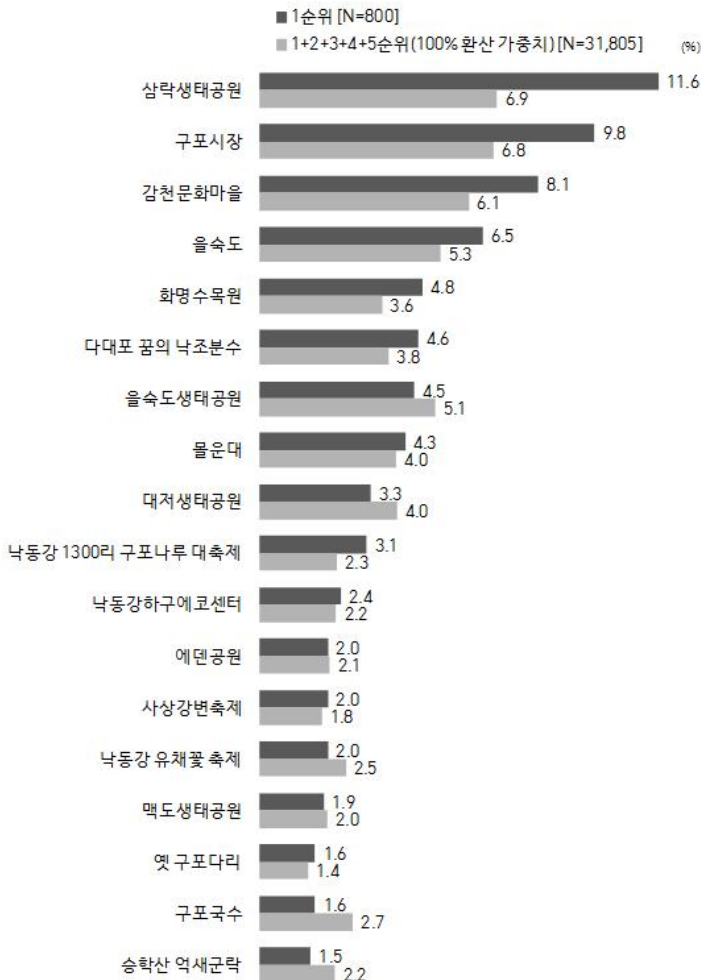


* 제시된 보기 중에서 각 항목별로 상위 10순위 까지만 제시함

(6) 자산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 : 시민, 전문가 응답

- (시민) 삼락생태공원 11.6%, 구포시장 9.8%, 감천문화마을 8.1%, 을숙도 6.5%, 화명수목원 4.8%,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4.6%, 을숙도생태공원 4.5%, 물운대 4.3%, 대저생태공원 3.3%,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3.1%, 낙동강하구에코센터 2.4%, 에덴공원 2.0%, 사상강변축제 2.0%, 낙동강 유채꽃 축제 2.0% 순으로 나타남(1순위 응답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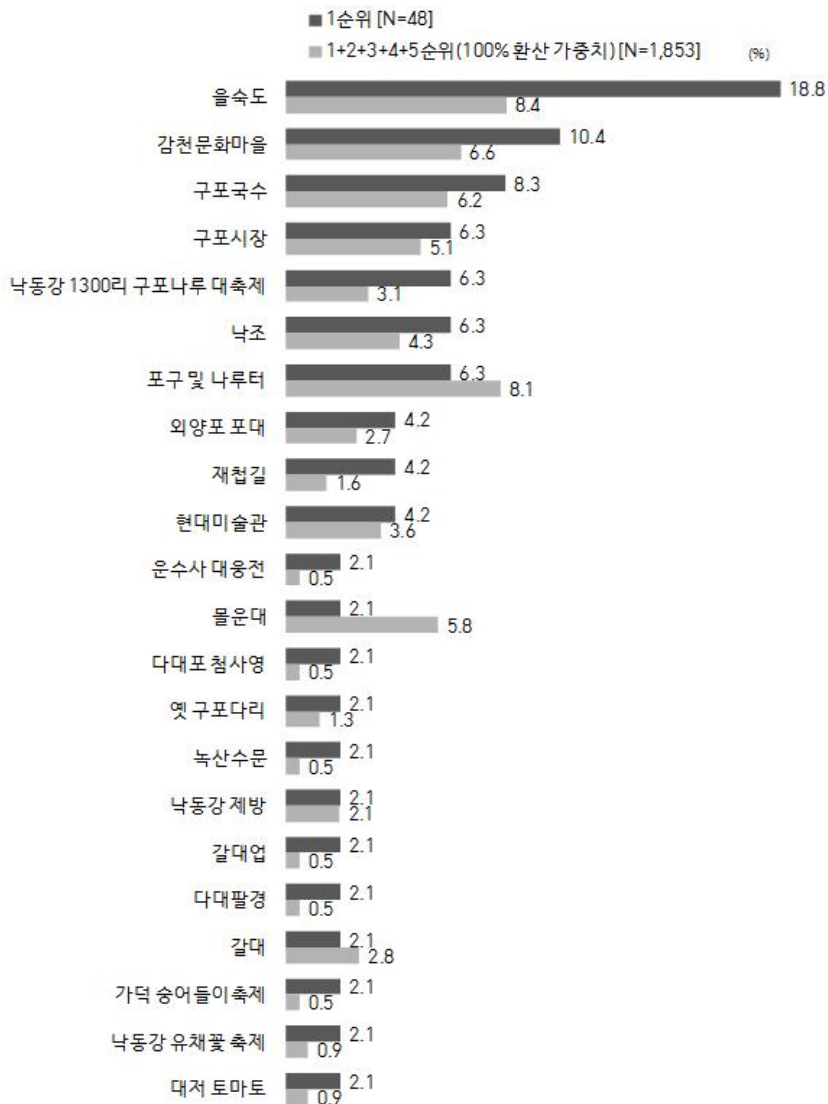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10, 2순위=9, 3순위=8, 4순위=7, 5순위=6), 단위 : %)



* 제시된 보기 중에서 1순위 응답비율 기준으로 1.5% 이상만 제시함

- (전문가) 을숙도 18.8%, 감천문화마을 10.4%, 구포국수 8.3%, 구포시장 6.3%,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6.3%, 낙조 6.3%, 포구 및 나루터 6.3%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응답 기준임)

(보기제시, 가중치 설정(1순위=10, 2순위=9, 3순위=8, 4순위=7, 5순위=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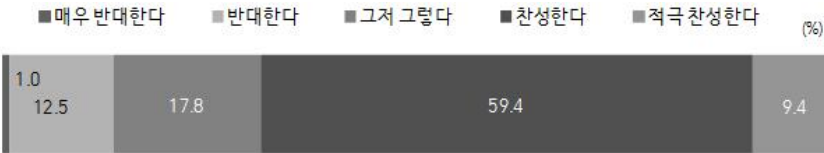
* 제시된 보기 중에서 1순위에 응답된 보기만 제시함

(7) 서부산권 4개구 통합축제 개발에 대한 의견 : 시민, 전문가 응답

- (시민) 전체 응답자의 17.8%가 서부산권의 통합축제 개발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 13.5%, 찬성한다(적극 찬성한다+찬성한다) 68.8%로 응답함

(응답자 수 : 800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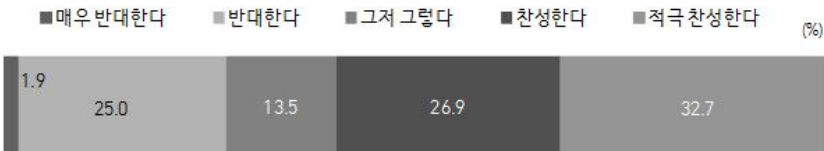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 3.64점>



- (전문가) 전체 응답자의 13.5%가 서부산권의 통합축제 개발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 26.9%, 찬성한다(적극 찬성한다+찬성한다) 59.6% 응답함

(응답자 수 : 52명, 5점 척도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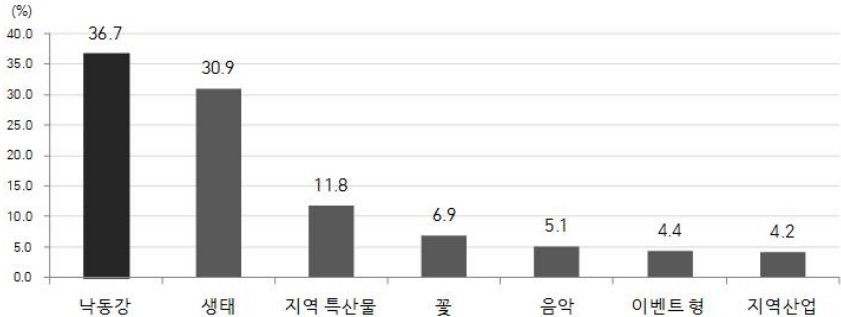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 3.63점>



(8) 서부산권 4개구 통합축제 선호 주제/테마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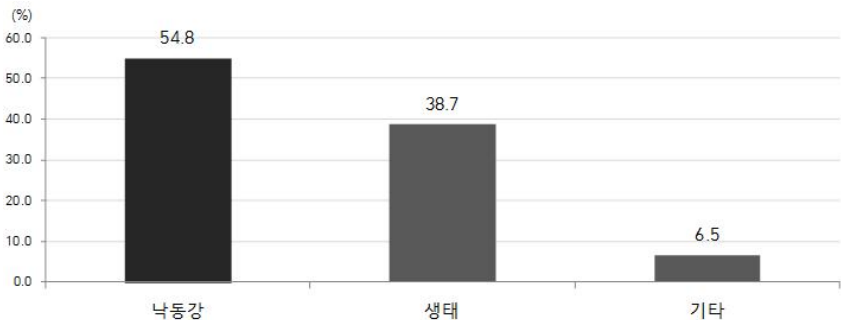
- (시민) 서부산권의 정체성을 살린 4개구 통합축제를 개발, 운영하는 계획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축제의 선호하는 주제와 테마를 살펴보면, **낙동강** 36.7%, **생태** 30.9%, 지역 특산물 11.8%, 꽃 6.9%, 음악 5.1%, 이벤트 형 4.4%, 지역산업 4.2%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수 : 550명, 서부산권 축제 찬성 응답자 기준, 보기제시, 단위 : %)



- (전문가) 서부산권의 정체성을 살린 4개구 통합축제를 개발, 운영하는 계획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축제의 선호하는 주제와 테마를 살펴보면, **낙동강** 54.8%, **생태** 38.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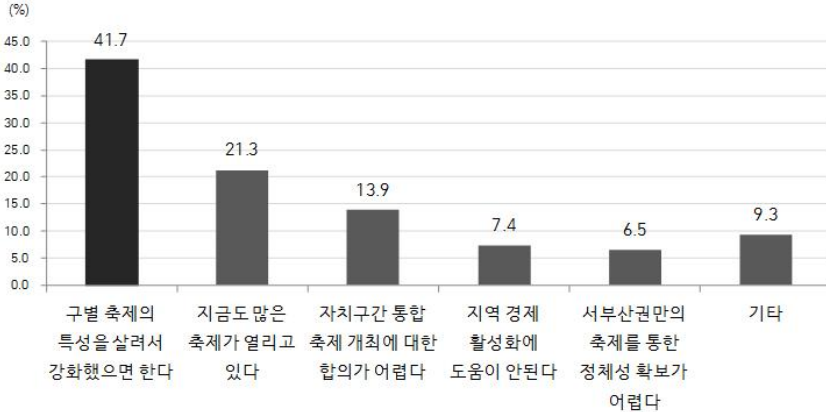
(응답자 수 : 31명, 서부산권 축제 찬성 응답자 기준, 보기제시, 단위 : %)



(9) 서부산권 4개구 통합축제 개발 반대 이유 : 시민,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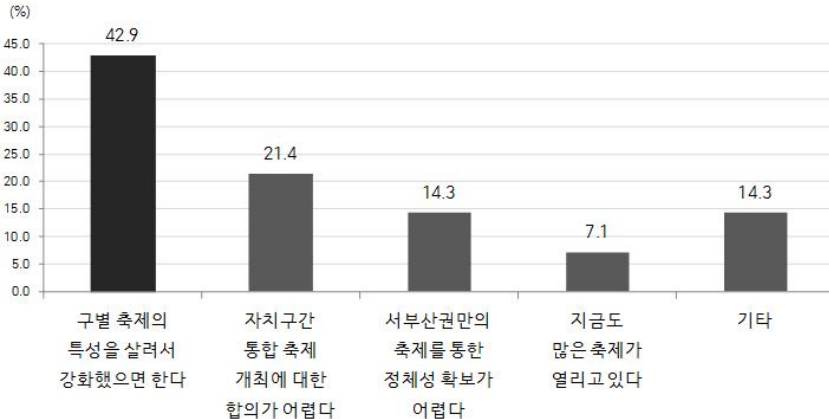
- (시민) 구별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강화했으면 한다 41.7%, 지금도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21.3%, 자치구간 통합 축제 개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13.9%,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7.4%, 서부산권만의 축제를 통한 정체성 확보가 어렵다 6.5%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수 : 108명, 서부산권 축제 반대 응답자 기준, 보기제시, 단위 : %)



- (전문가) 구별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강화했으면 한다 42.9%, 자치구간 통합 축제 개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21.4%, 서부산권만의 축제를 통한 정체성 확보가 어렵다 14.3%, 지금도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7.1%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수 : 14명, 서부산권 축제 반대 응답자 기준, 보기제시, 단위 : %)



3. 시사점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 서부산권 시민들의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5점 척도 평균 기준)
 - 대부분의 도시는 강을 사이에 두고 양안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서부산권 낙동강 유역의 미래 전망은 밝음
 - 이때 중요한 것은 서부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임
 -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생태성, 유일성, 미래성 등의 가치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시민의 호응을 고려하여 장소와 장소, 장소와 커뮤니티, 장소와 시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장소성, 기억의 회복이 필요함
 - 장소성에 기반한 지역재생과 문화환경 구축은 생태, 미래지향성, 자연친화성, 시민성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임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란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내용물’을 의미함(김진형, 2011: 280)
 - 전문가들의 문화콘텐츠화 가능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에 따라 자산 활용 관련 문화산업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민의 소득창출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을 포함하는 음식, 문화, 역사, 생태,

- 기업과 경제 등 다양한 창작물 생산 및 브랜드화 유도 등
 -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자산의 융합, 창조적 재생을 위한 정책적 구상은 인문문화자산의 박제화, 무대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생태, 마을, 생활상으로 대표되는 자산 활용의 가능성과 문화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식의 필요성
 - 문화브랜드란 서부산권에만 있는 지역색이 뚜렷한 문화유산 및 자연자원, 문화공간으로 향후 관광브랜드화 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함
 -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이미지 파급효과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지역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된 이미지,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김면, 2016: 22)
 - 문화, 사람, 지역이 연계되는 운영모델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임(김면, 2016: 4)
- 고유한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특성과 자산들 간 연계의 필요성
 - 조사 결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강과 내륙의 문화자산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역사와 흐름, 소통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엮어나가는 접근이 강조됨
 - 시민, 전문가의 통합축제에 대한 찬성 응답 역시 이를 반영함
 -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인문문화자산을 관통하는 가치의 발신과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행정단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제 5장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⁵⁾

1. 낙동강 문명사 박물관 건립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부산지역 박물관, 역사관, 생가 등의 수는 44개소로서 그 중 서부산권에는 6개소가 운영중이며 방문객 수는 저조한 수준
 - 역사에 기반한 박물관은 동주대학교 부속 박물관과 신라대학교 박물관(사하구), 록봉민속교육 박물관(강서구), 사상생활사 박물관(사상구)이 있으며, 해양기반은 부산어촌민속관(북구), 생태는 낙동강 에코센터(사하구)가 있음
 - 2014년 부산관광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 방문객 수는 부산 방문객(11,738명)에서 국립해양박물관(74명, 0.6%),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10명, 0.1%), 부산근현대역사관(8명, 0.1%), 낙동강에코센터(16명, 0.1%)는 낮은 수를 기록

5) 본 연구에서 ‘활용’이란,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자산의 전략적인 활용(인프라조성, 공간문화사업, 문화콘텐츠, 축제, 상품 개발, 시민 교육 등)’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장소와 공간의 재창조, 자산가치 재창조, 지역, 사람 중심의 접근과 시민·전문가의 인식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 서부산권이 갖추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점과 자산 간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서부산권의 고유한 인문문화자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시민과 방문객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인류 문명의 교류지역이자 가야문명의 발원이라고도 할 수 는 낙동강의 영남권 선비문화, 남명학의 정신 등 정신사적 가치와 생활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민초들의 삶, 낙동강 주운(舟運)의 역사, 물류의 역사 등 거대한 낙동강의 문명사와 궤적을 담아내야 함
 - 낙동강(522km)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發源)하여 약 1,300리를 흘러 부산 바다로 합류함
 - 낙동강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기’와 ‘떠내려오는’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
 - 강서구의 염전, 사하구의 후리소리, 사상구의 갈대빛자루 작업 모습 그리고 북구의 구포국수와 재첩잡이, 가덕도항의 배루바위 이야기 재생 필요
-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지역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필요

2) 추진내용

- 기존 박물관의 전시구성에서 탈피한 체험형 박물관 구성
 - 기존 박물관의 일반적 구성은 역사의 주제를 수집하여 보존, 조사하고 전문가가 설명하여 방문객에게 역사와 예술 문화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구성(전문성 강조)

- 전문성 강조 형태를 벗어나 낙동강 중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등의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기억과 입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구성(사실성 강조)

캐나다 역사 박물관(Canadian Museum of History)



설립현황

- 1856년 설립하여 1986년 캐나다 문명 박물관(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으로 명명되었으나 2013년 캐나다 역사 박물관(Canadian Museum of History)으로 이름을 변경, 현재 퀘벡 주 가티노(Gatineau)의 오타와 강(Ottawa River)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130만 명의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음

박물관의 목적

- 캐나다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캐나다인들의 지식, 생활사 그리고 사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캐나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

박물관 프로그램

- 3개 상설 전시실(그랜드 홀, 퍼스트 피플즈 홀, 캐나다 역사 홀) 운영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Activities)
- 전문가와의 토론회
- 아이들을 위한 영화 워크숍
- 학교 프로그램(School Programs)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워크숍, 학년별·주제별 프로그램, 선생님을 위한 온라인 자료 제공, 가이드 투어 시행

자료: <http://www.historymuseum.ca>(2017년 09월 29일).

- 서부산권 허브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기관과의 연계확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학기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흥미로운 생물자원 체험, 탐구, 토론 등을 시행중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식물 관찰에서 탐조체험까지 체험학습을 진행중



자료: <http://www.nnibr.re.kr>(2017년 09월 29일).

<그림 V-1> 국립생물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 무엇보다, 전시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민, 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간의 기능을 동시수행
 - 한 학기동안 박물관과 지역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와 교육 연계를 실시, 중요한 역사자산이 자연스럽게 학교교육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회마련
- 문명사 박물관은 기초적인 인문문화자산의 전시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민관의 협동 조직 구성 필요

3) 기대효과

- 서부산권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짐으로서 관광

객에게 신뢰성 있는 민간 해설사 역할 수행

- 민관협동 구조의 박물관 운영은 새로운 운영모델 구축과 함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박물관 운영 가능성 제고
- 박물관 건립과 인문문화자산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서부산권이 갖고 있는 공업지대와 같은 도시 이미지 개선
- 서부산권의 대표적 브랜드화와 서부산권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가능
- 관광객의 내륙확산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권으로 부터 방문객 유입으로 서부경남권의 허브역할 가능
 - 공간적 측면에서, 해운대로 몰리는 관광객을 서부산권으로 유도하는 것 보다 창원과 김해지역의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에 적합
- 서부산권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문화자원의 결합으로 인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관광객에게 보다 품격 있는 볼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음

2. 낙동이야기 길 조성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부산권 형성의 근원인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역민이 느끼는 서부산권의 정체성 모호에 따른 지역민과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원 모색 필요

- 생태와 테마가 있는 이야길 구성에 대한 욕구와 서부산권의 자산이 ‘자연친화적이다’라는 시민과 전문가의 높은 인식의 결과 도출
- 낙동강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문화 자산이 융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에코델타시티 조성 및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서부산권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 및 인문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 특히, 서부산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사라진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추진내용

- 4개구의 대표적 인문문화자산을 거점으로 설정한 공존(共存)·공락(共樂)길 조성
 - 공존·공락 길은 서부산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인간이 공유하며 같이 즐긴다는 의미
 - 기존의 자연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기억·시설 등의 자산을 같이 공유(共有)·공락(共樂)함
- 서부산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낙동강 주제의 테마 길 조성
 - 녹산, 명지 염전에 대한 이해와 유래 등을 이해하며 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명지소금은 서해안의 소금제조법인 햇빛에 말린 천일제염과는 다른
가마에 불을 지펴서 구워내는 전통 우리나라 방식”

- 마을-강길-도로-문화자산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테마 길 혹은 북구의 동원진(東院津) 나루와 동원마을의 마을지킴이에 대한 유래를 연결하는 테마 길 조성
- (참고) 시코쿠 오펜로 순례길은 일본 승려 홍법대사(弘法大師)의 수행길을 토대로 88개의 사찰을 순례하는 길로서 오펜로를 걷는 순례자들은(‘오펜로상’이라 불림) 흰 삿갓, 흰 장삼,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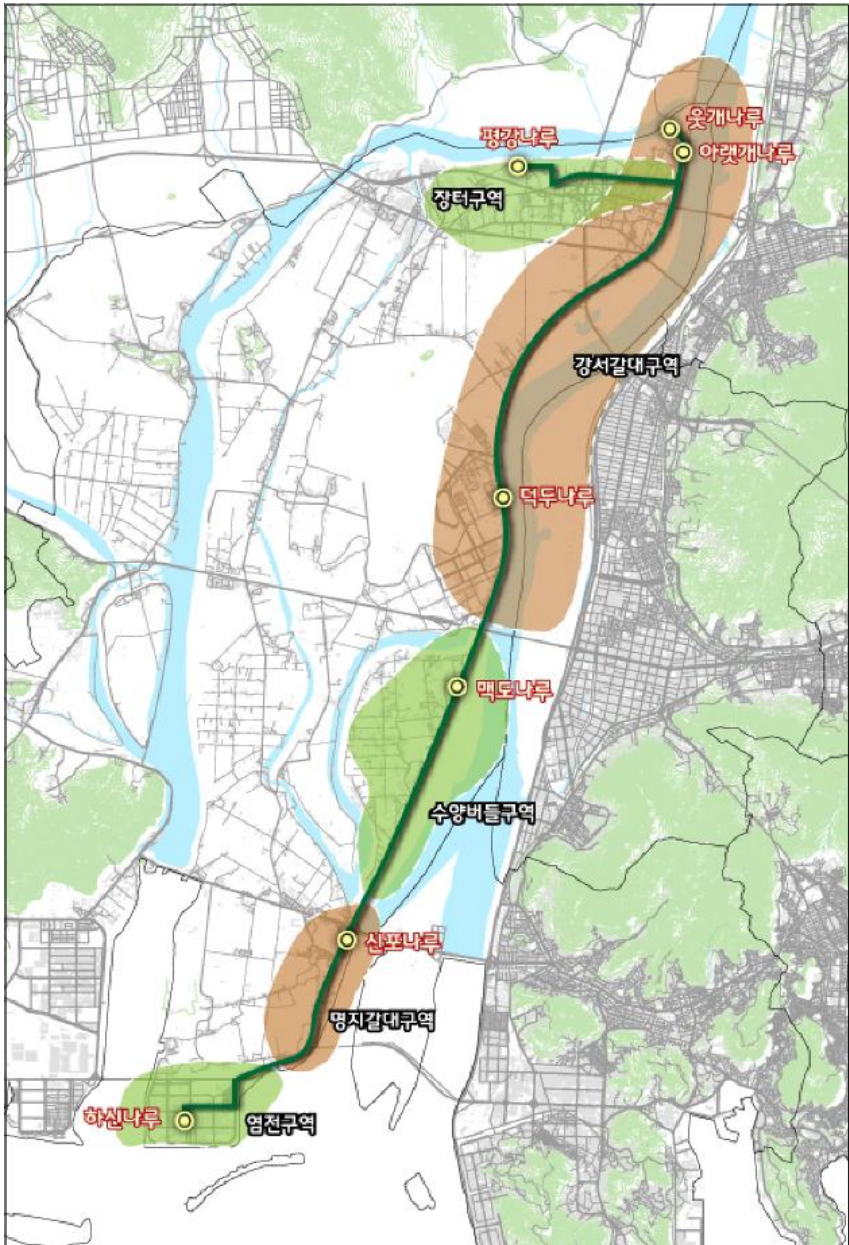
자료: http://japan-magazine.jnto.go.jp/ko/1403_pilgrimage.html
(2017년 09월 29일).

<그림 V-2> 일본 시코쿠 오펜로 순례길

- 낙동이야기 길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과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통로 필요
 - 갈맷길, 둘레길, 해안길과 같이 현재 조성된 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부산시 혹은 각 구가 수행
 - 여러 행정기관에서 길을 관리함으로써 길에 대한 홍보 및 연계 어려움 극복
- 거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결성하여 길의 관리 및 안내자 역할 부여

(1) 낙동 나루터 복원

- 낙동강과 서낙동강 둘레를 따라 사라진 나루터와 포구를 복원하여 낙동이야기 길의 허브지로 개발
 - 낙동강과 서낙동강을 따라 사라진 나루와 포구를 합치면 전체 약 69개터에 이름
 - 북구 10개터, 사상구 9개터, 사하구 4개터 그리고 강서구 46개터로 조사(최도석 외, 2013)
- 허브나루터의 위치와 내용 그리고 연계된 이야기 안내서를 제작하여 SNS나 기존의 갈맷길 관련 단체(예: 갈맷길 동호회)에 배포
- 전통나루터 재현이나 나루터 이야기를 담은 표시석을 세우고 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새로운 서부산 랜드마크로 개발
 - 나루터를 형상화 할 수 있는 독특한 표시석을 구상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 필요
- 1차적으로 낙동강을 따라 복원된 나루터를 허브로 각 나루터간을 테마가 있는 구역(zone)으로 지정하고 이야기길 개발
 - 낙동강 하구 명지구역의 동지포구 주변을 염전과 명지갈대 구역(zone)으로 지정하여 개발
 - 낙동강과 서낙동강이 갈리는 지점의 옷개나루와 맥도나루를 잇는 낙동길은 강서갈대 구역으로 지정하고 갈대복원 및 갈대를 소재로 한 요소(예: 갈대집) 배치
 - 추후 추가적으로 허브나루터를 기준으로 내륙으로 길을 확장함으로서 거미줄을 연상하는 길 조성, 즉 언제 어디서나 길을 걸으며 문화자산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림 V-3> 낙동이야기 길(안)

(2) 낙동 이야기 길 책 발간

- 2016년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를 통해 상세한 인문문화 자산 목록을 보고서로 발간
 - 보고서에는 4개 구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역사, 장소, 시설, 기억, 생활 그리고 이미지 자산을 기록
 - 그러나 보고서의 틀과 양식으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이 참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 서낙동강의 나루터와 포구에 관련한 일화나 낙동이야기 길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한 이야기 구성
- 책의 종류는 만화, 동화책, 인문학책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
 - 역사에 대한 어려움과 이야기에 대한 재미를 조화롭게 구성하기 위한 삽화 그리고 스토리 전개 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순례길
(부산발전연구원)



수영야류탈바꿈
“별탈없이 산다”
(수영성마을)

<그림 V-4> 도보 길을 통한 책 발간 사례

3) 기대효과

- 서부산권이 가진 자연자산의 생태환경 보존과 인문문화자산의 단계적 복원
 - 낙동 나루터와 포구를 복원한 길을 통해 사람과 인문문화자산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사람과 인문문화자산의 소통은 더 많은 관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확대적인 인문문화자산의 복원 가능성을 제고함
- 낙동강과 서낙동강 사이에 있는 강서구 둘레를 나루터와 포구의 이야기길로 조성하여 도시 안에 섬(Island) 구현으로 새로운 콘텐츠 활용가능
- 낙동 나루터길 조성 후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혹은 관광지 개발 가능
 - 낙동나루터의 독특한 형상의 표시석을 거점으로 주변으로 길을 확장하거나 마을 특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가능
- 시민의 자연친화적 생활패턴 변화에 부합하는 요소를 갖추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타 길과 차별화되는 주제로 관광자원으로서 유일성 확보
- 낙동강을 주변으로 염전, 소금장수, 인어이야기와 같은 수많은 일화와 전설들을 전달하는 캐릭터 확보 및 구체적인 낙동이야기 길에 대한 이미지 구축
- 길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인문 문화자산의 만남과 이야기를 재미있게 책으로 엮어 발간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쉽게 접근

3. 팟캐스트(Podcast) 제작 ‘낙동서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다양성을 부각시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필요
- 서부산권이 가진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젊은 세대와 기존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필요
 - 서부산권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서민적이다(3.76%), 친근함이 있다(3.55%), 자연친화적이다(3.37%)순의 높은 결과가 나타난 반면, 젊다(2.82%), 품위가 있다(2.83)는 가장 낮은 순으로 조사
- 무엇보다, 지역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화 방안 필요
 - 설문결과에서는 서부산권의 자산가치로서 생태성(3.73%)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3.75%)와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3.73%)을 위해 자산가치에 대한 활용 방향성을 드러냄

2) 추진내용

- 팟캐스트(Podcast)는 애플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를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
 - 2004년 영국 기술 칼럼니스트 벤 헤머슬리(Ben Hammersley)

가 처음 사용

- 이야기를 MP3 파일로 녹음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려받는 방식으로 개인주문방송(Personal on Demand Broadcast)이라 칭함
- 최근 ‘김생민의 영수증’이 인기를 끌면서 더 다양한 분야(외국어 학습, 라디오, 예능, 정치, 뉴스, 책임어주기 등)의 팟캐스트들이 주목



자료: http://blog.naver.com/ramie_me/221136985701(2017년 10월 25일).

<그림 V-5> 팟캐스트 이미지

- 서부산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라져 가는 이야기들을 현 시대의 디지털 문명에 맞게 제작
 - 지역의 인문문화자산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여 생생한 이야기 담기
-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은 현 시대의 흐름에서 눈이 아닌 목소리로 인문문화자산의 가치를 전달
 - 장소, 기억, 시설 등의 자산에 얹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 낙동강을 포함한 서부산권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봉사활동자,

지역활동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팟케스트 제공 도구는 부산관광공사가 지난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서부산권 스탬프 투어 앱과 공공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
 - 스탬프 앱은 서부산권의 관광지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관광지 안내를 통한 방문유도
 - 관광지 안내에 있어 그 관광지와 연계된 이야기(일화나 전설)를 추가로 제공
 - 부산시와 각 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구민에게 정보제공 및 홍보



자료: 부산시 내부자료.

<그림 V-6> 서부산권 스탬프 관광 앱 이미지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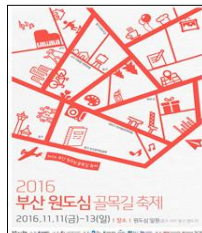
-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를 현 시대흐름인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융합 관광자원화 가능
 - 특히, 스마트 폰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세대로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어 서부산권의 이미지 전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팟캐스트 제작은 오래된 구전과 유적지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있는 세대들이 사라짐에 따라 자료의 소실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 보존 가능
- 팟캐스트로 제작된 ‘낙동서고’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새로운 관광콘텐츠 생성
- 라디오 형식으로 관광지 정보를 듣는다는 색다른 재미를 통해 서부산권의 아름다움 전달
- 지역주민이 낙동서고 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와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커뮤니티 웰빙(Community Well-being)⁶⁾ 지수 상승 기대

6) 커뮤니티 웰빙(Community Well-being)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거주민이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요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함(Park, Lee & Lee, 2016)

4. 4개구 연합 축제 ‘낙동 뱃길따라 1300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조사결과에 따르면, 4개구의 장소자산이 서부산권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활동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조사
 - 장소자산은 장소성을 지닌 공간 및 경관으로서 을숙도, 삼락생태공원, 구포시장, 감천문화마을, 낙동강 등이 포함
 - 삼락생태공원, 구포시장이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산과 문화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
- 4개구를 중심으로 서부산권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낙동강’ 장소자산을 활용한 ‘4개구 연합축제’ 구성 필요
 - 설문결과에서 4개구 통합축제 구성을 위한 주요 테마로서 낙동강(36.7%)과 생태(30.9%)가 선정
- 부산 ‘원도심골목축제’를 비롯하여 강원도 ‘평창원터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역의 축제들이 통합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안정적인 축제를 개최



자료: 부산시 내부자료 ;

<https://blog.naver.com/leedan2/2208844448584>(2017년 10월 25일).

<그림 V-7> 국내 통합축제 사례 이미지

-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4개구(區) 연합 축제 필요

2) 추진내용

- 낙동강 줄기를 따라 이어진 을숙도-맥도-삼락-대저-화명 생태 공원을 뱃길로 이어 연합축제 구성
 - 설문결과에서 서부산권 4개구통합축제 개발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68.8%가 찬성하고 축제 주제로서 낙동강과 생태가 적합하다고 응답
- 4개구 연합축제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구(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4개구 연합축제 위원회 구성 필요
 - 기존에 북구, 사하구, 사상구 그리고 강서구는 각 구의 특성을 반영한 축제를 조직 및 운영
 - 축제주체는 각 구가 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통해 축제의 홍보나 운영 등을 조율하여 전체적인 연합축제의 프레임 구성
- 축제의 시기는 기존의 축제를 고려하여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연계성을 갖추고 구성
 - 대체적으로 자연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서부산권의 축제를 고려해 볼 때, 통합축제 시기 조정
 - 강서구의 대저토마토와 유채꽃 만개 시기는 4월 중순에서 말까지 이어지며, 사상구의 부산삼락벚꽃축제와 봄꽃축제가 4월 초순과 4월말에서 5월 초순까지 각각 개최

- ‘낙동 뱃길따라 1300리’ 연합축제기간동안 참여자의 원활한 이동과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낙동강 지역민 어선 활용
 - 2017년 기준으로 4개구에 소속되어 있는 내수면어업⁷⁾ 어선 허가건수는 약 300건 이상
-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갈맷길과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각 공원 축제 진출입로 정비
 - 자전거 무료이용을 확대해서 축제기간동안 지역민, 관광객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
- 축제기간동안 5개의 공원과 연계된 각 구의 인문문화자산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자료 배포 및 자산을 형상화한 인형 등을 배치
 - 명지소금과 갈대지기 이야기를 풀어낸 안내장(예: 패러디형 포스터 혹은 만화이야기)이나 소금장수와 갈대지기 할아버지를 형상화한 인형 탈 제작
- 4개구 연합축제를 위한 생태공원의 구체적인 아이টে을 아래와 같이 제안

(1) 을숙도 생태공원

- 을숙도 생태공원 주변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철새, 습지 등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연계한 생태체험 주제의 축제 구성 필요

7) 내수면어업이란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어업을 의미하며, 서부산권 조업 허가내용은 사상구 25건, 강서구 233건, 사하구 6건, 북구 53건으로 나타남(4개 구청 자료 재구성)

- 4월~5월 기준으로 사하구의 대표적 축제는 감천문화마을 축제(5월 12일~14일), 하단포구옹어축제(5월 26일~28일)가 있음
 - 감천문화마을 축제는 감천1, 2동의 골목축제로서 축제기간 동안 4개구 연합축제의 홍보창구를 개설하여 연계방문 유도
- 9월 이후를 기준으로 사하구 축제는 사하예술제(9월 22일~28일), 부산 어묵축제(11월3일~5일), 다대포 어항문화축제(11월4일~5일)가 있음
- 4개구 연합 축제에서 을숙도 생태공원은 생태체험, 관찰 등과 같은 자연생태체험 학습으로 구성된 축제 고려 필요

(2) 맥도 생태공원

- 맥도는 ‘2030년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의 개최를 위한 예정지로서 유치 성공을 위한 주제로 축제 구성 필요
 - 등록 엑스포는 광범위한 주제를 통해 개최국은 부지(敷地)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여 6개월 동안 전시(부산광역시, 2017년 11월 2일)
 - 독일 하노버(2000), 일본 오사카(1970), 아이치현(2005), 중국 상해(2010), 이탈리아 밀라노(2015), UAE 두바이(2020 확정)가 등록엑스포를 개최
- 낙동강 일원에서 세계 등록엑스포의 개최 염원을 담아 낙동강과 전 세계의 문화가 융합 할 수 있는 문화 축제 구성
 - 부산지역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음식, 음악, 의복 등)을 공유하는 축제를 마련
 - 유학생에서 이주민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의 문화를 펼치는

축제로 확대 필요

(3) 삼락 생태공원

- 삼락생태공원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장소자산으로 가족, 연인 단위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테마 축제 구성 필요
 - 삼락생태공원은 벚꽃축제를 비롯한 국제록페스티벌 등 사상구의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소로서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
- 봄꽃의 향연이 이뤄지는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이벤트를 주제로 한 축제 요소 고려
- 가족, 연인, 친구 단위를 위한 에코캠핑장이나 가족식물농원을 조성하여 봄꽃의 열기를 극대화 할 필요
 - 에코캠핑장은 축제기간 동안인 봄의 낙동강 생태관찰과 이후 여름에는 레저(수상레저, 카약 등)를 즐기고, 가을, 겨울에는 레저뿐만 아니라 캠핑, 철새관찰 등의 이벤트 가능
 - 가족식물농원 단지를 조성하여 꽃이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킴과 동시에 주변 경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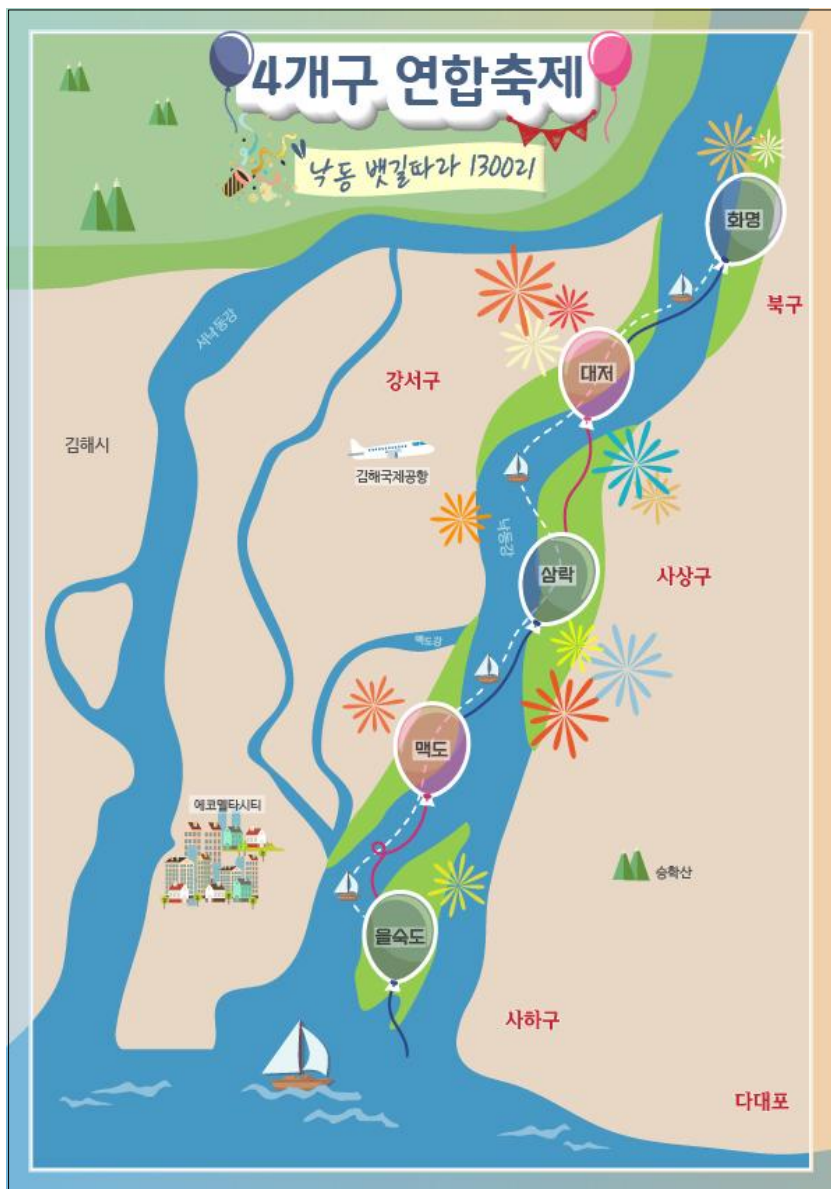
(4) 대저 생태공원

- 대저공원은 강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채꽃, 캠핑,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설정하는 축제 구성

-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3월 31일~4월 2일)를 시작으로 대저 토마토 축제(4월 초) 그리고 유채꽃 축제(4월 15일~23일)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최근,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신공항 건설로 인한 대저토마토 재배지의 축소로 인해 그 명맥이 끊어질 수 있는 우려 발생
- 대저토마토, 명지전어 등 확산적인 지역 특산물 개발 및 홍보에 적극 활용

(5) 화명 생태공원

- 화명은 구포나루와 구포시장을 잇는 역사문화축제의 주제로 구성 필요
 - 구포시장은 서부산권의 인문문화자산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조사
 - 매년 상반기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과 낙동강 구포나루축제가 개최
 - 이를 연계한 축제 구성으로 구포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개 도살) 또한 개선 필요
- 화명생태공원은 구포장터와 3.1만세운동, 나루터 관련한 보부상 등 북구의 숨겨진 역사와 인문문화자산을 축제를 통해 드러낼 필요
 - 역사와 문화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축제를 통해 보완



<그림 V-8> 4개구 연합축제 구성(안)

3) 기대효과

- 낙동강을 둘러싼 강문화의 역사를 중심으로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의 연합 축제구성은 낙동강이 단순히 강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서부산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4개의 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
 - 축제라는 부드러운 아이템을 통한 행정 구간의 연합은 추후 자치분권을 위한 통합에 긍정적 영향
- 축제기간 동안 운영, 홍보, 경제, 축제의 주제 확립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성과 기대⁸⁾
- 낙동강이 생활터전인 어부의 어선을 활용하여 통합축제의 독특성과 지역민 참여 그리고 지역민의 직접적 경제에 활력 제고
- 강을 따라 4개구가 연계한 축제구성은 국내 유일의 축제로서 서부산권을 알리는데 핵심 역할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표적 축제로 성장 기대
 - 4개구 5개 공원의 연합축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배울거리 등이 풍성해짐에 따른 축제 지위 상승
- 5개의 생태공원의 뱃길 이용이라는 독특성과 자연생태계를 저해하지 않는 생태공원과 주변지역으로 연계된 축제 주제는 매력적인 콘텐츠화 가능⁹⁾

8) 조사결과에서, 통합축제 반대이유로서 구(區)별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강화해야 한다가 전체의 21.7%로 나타나 연합축제를 통해 낙동강이라는 큰 줄기에서 각 구의 축제특성을 보완한다면 개별적 특성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9) 연합이라는 큰 축제 속에 무궁무진한 관광콘텐츠 소재 발굴 가능

-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낙동강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문화자산을 인식시키는데 긍정적 영향 기대
 - 성공적인 연합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고취

5. 이야기의 콘텐츠화, 캐릭터, 공예 상품 개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부산의 가치를 품은 이야기와 삶의 흔적들은 지역의 가치를 품고 있는 소중한 자산
- 사라져가는 것에 다양한 발상과 창조력, 경쟁력을 통해 문화콘텐츠화, 디자인 개발 등 추진
- 발상의 전환을 통한 이야기의 콘텐츠화, 캐릭터, 공예 상품 개발을 통해 문화자산의 보존과 복원, 인력양성, 상품화 등을 지원

2) 추진내용

(1) 이야기의 콘텐츠화

- 강서구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갈대밭 도깨비’ 이야기는 갈대를 붙잡고 싸우고 있는 장정의 이야기(오재환 외, 2016: 218)
- 헛배이야기, 처녀뱃사공과 손님, 바가지를 빌려달라는 해치 이

야기, 고기잡이에서 해치에게 걸려 고생한 이야기 등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이야기 소재(오재환 외, 2016: 232)

- 이 중 ‘헛배’ ‘해치’의 경우 내륙 지역 ‘도깨비’에 비견되는 초자연적 존재로 캐릭터화도 가능

- 이밖에도 ‘인어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화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음(오재환 외, 2016: 222)

(2) 낙동이야기 길 캐릭터 상품개발

- 낙동이야기 길을 수호하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낙동 캐릭터 제작
 - 4개 구(區)뿐만 아니라 강을 위주로 표현된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



사하구(고우니)



강서구(새로미)



북구(북이)



사상구(신바람)

자료: 각 구 홈페이지.

<그림 V-9> 서부산권 구(區) 대표 캐릭터



구포나루축제
(보부상)



충주 목계나루
(별이, 신이, 제이)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백로, 떼까마귀)

자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목계나루, 헬로캐릭터 홈페이지.

<그림 V-10> 강을 주제로 한 캐릭터 사례

- ‘노직이’는 갈대를 생활기반으로 살아온 낙동강 하구지역의
공통자산으로 자치구별 상징물이나 캐릭터와 차별화된 공동
캐릭터 활용이 가능(오재환 외, 2016: 219-216)¹⁰⁾
- 소금장수 이야기를 활용, 각 지역을 떠도는 보부상과 같이 지
역과 지역의 문화를 전파, 소통하는 매개적 인물로 낙동강 지
역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활용 가능(오재환 외, 2016: 222)¹¹⁾
-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캐릭터 제작 참여 필요
 - 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활동가와 주민, 공동체, 학교나
동호회 등 다양한 단체나 개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응
모전 개최
 - 응모전 개최를 통해 캐릭터 관련한 아이디어 모집뿐만 아니
라 자연적인 낙동이야기 길의 알림 역할 가능

10) 갈대밭 마을에는 갈대밭 수호신인 노직이가 있다고 믿었으며, 노직이들은 갈대밭을 개간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11) 소금장수 이야기는 돈을 불러 주는 장승, 원수를 갚아주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각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 소재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가능함

(3) 재첩공예 상품개발

- 재첩은 1980년대까지 서부산권 지역민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대표적인 생활자산
 - 강 하구 지역인 엄궁, 감전, 삼락의 강변 모래펄에는 재첩이 많이 났으며, 주로 재첩 잡이와 재첩국 장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감¹²⁾
- 재첩을 모티브로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 공예품 개발
 -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는 재첩을 활용한 공예품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
 - 이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확장하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보급전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오재환 외, 2016: 234)



자료: 사상생활사박물관.

<그림 V-11> 재첩노리개

12) 재첩국 아지매의 외침은 새벽의 첫소리인 동시에 부산 사람들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으며, 대티고개를 넘어오는 재첩국 아지매들의 긴 행렬은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고 전해짐(오재환 외, 2016: 149)

3) 기대효과

- 잊혀져가는 기억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서부산권 지역민들의 삶의 이야기 조망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 회복과 지역문화의 가치 발견
- 보전, 복원, 융복합을 통한 콘텐츠 활용의 제고
- 문화콘텐츠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극대화

6.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¹³⁾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역사, 문화적 기록들, 음식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성찰을 통해 지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다운 삶, 삶의 질, 웰빙 등의 실현
 - 마을, 지역, 문화 등을 중심으로 공공성, 사회적 연대, 회복과 관련하여 인문학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음
 - 인문학은 인간의 모든 가치 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것임
- 서민적이고 친근한 서부산권의 이미지로 보편적 시민 의식 성장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시민 교육을 통해 공생·공존의 가

13) 시민 교육은 첫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으로서의 시민 교육,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 교육, 셋째, 보편적 시민의식 발전을 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시민 교육 등이 있음(희망제작소, 2014년 01월 15일)

치 증진

- 서부산권은 서민 삶이 투영된 생활문화의 원천적 가치와 장소성이 특징

2) 추진내용

- 역사자산을 네트워킹하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공간에서 역사 읽기’ 테마 구성의 원천적 소스로 ‘우리 마을 역사 알기’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탐방(오재환 외, 2016)
 - 역사적 장소에 구현된 기억자산, 장소성의 현재적 해석과 미래적 관점의 적극적 활용
 - 일본 수탈과 저항의 공간들, 재첩길을 통한 부산 아지매들의 삶의 체험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오재환 외, 2016: 256)
- 낙동강을 따라가는 문학기행 운영
 - 작가의 생각을 되새기고 문학적 배경이 된 경로를 탐방하여 인문문화자산의 문학적 가치를 직접 체감이 가능하도록 구성
 - 조명희, 김정한, 강인수, 이문열, 고금란, 김언수, 함정임, 박향, 김일지 등의 소설에 나타난 장소를 찾아감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가족단위 등 층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낙동강의 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 구포국수, 소금, 김, 재첩, 송어, 대구, 웅어, 파, 토마토 등 산지 장소와 음식을 연계
 -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음식문화를 주제로 서부산권의 정서를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인문학적 시각으로 해석, 공감대 형성

- 북구 지역은 예부터 낙동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포구와 시장이 섰고, 6·25전쟁 직후 피란민들이 몰려와 값싸고 쫄깃한 맛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었던 구포국수가 유명(오재환 외, 2016)
- 사하구 지역은 낙동강 하구 하단 재첩양식, 다대포 멸치잡이, 장림포를 중심으로 염분(鹽分: 소금가마) 생산, 장림 김(海苔) 등이 주요 생업활동
- 사상구 지역은 장어잡이, 재첩잡이, 갈대업, 카네이션 재배 등이 주요 생업활동
- 강서구 지역은 가덕도 송어잡이(육소장망), 명지파, 김양식, 염전 업(명지동, 전오염), 대저토마토 등이 특징

3) 기대효과

-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과 문화적 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회 마련
- 시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기회 제공
- 지역 문화원, 생활사박물관,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도모

제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인문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낙동강 유역의 삶이 기록인 인문문화자산은 단순한 낙동강의 줄기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대장정의 기록임을 인식해야 함
 - 낙동강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이어지는 긴 강의 모습에서 그 주변지역에 살아오면서 생성되고 소멸되어간 삶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삶이 아니라 정신사적 의미와 교류, 경제, 전쟁, 유희 등 인간 삶의 전형들을 발견하고 지역 정체성 발견의 핵심적인 자산임을 인식해야 함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낙동강유역은 강의 하구가 아니라 문명의 출발과 미래를 연결하는 ‘경계’적 의미로 접근
 - 하구는 강의 끝이 아니라 바다와 연결되는 새로운 공간이자 역으로 내륙으로 이어지는 육지와 연결점임
 - 서부산권 주변의 가야문명은 ‘경계성’이 갖는 하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며, 지역의 핵심 가치임

- 이에 낙동강 유역의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개발과 공존의 삶을 관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됨
 -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 인식을 가질 때 이러한 인문문화자산의 가치를 담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자치구별 관심을 넘어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공동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현재를 뛰어 넘는 미래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음
 - 사라진 것들은 복원과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보존과 기억으로, 남겨야 할 것들은 보전과 특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¹⁴⁾

2) 인문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노력

- 앞서 제안한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활용 및 보전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현재 부산시에서 기록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술사 작업은 민요나 설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집중되어 있으므로 생활과 연관된 민속조사, 고증,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활용방안으로 제안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단발적인 용역을 통해서서는 어려우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길러진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속화할 수 있어야 함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문정신의 부흥, 가야사 연구 등과

14) 특히, 기억자산과 생활자산은 지역의 쇠퇴에 비례하여 소멸 시기도 빠르므로 이에 대한 보전과 특화 노력은 중요함

연계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제안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임
 - 현재 박물관 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김해와 낙동강 인근 도시들과의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에코델타시티 사업 중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델타문명관의 시설부문과 전시내용 구성을 부산시와 협의하여 사업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3) 거버넌스형 협력 체계 구축

- 서부산권은 부산시의 미래비전과 청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자 원천인 지역임
 - 기존 부산의 발전이 시가화의 한계가 있으며, 노후 공업지역이자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서부산권의 미래발전은 사람 중심의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문문화자산은 서부산권의 발전전략에서 사람과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문정신의 기초에서 개발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산임
- 서부산권의 발전은 기존의 서부산권 4개구의 공동의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상생 발전전략을 통해 부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됨
 - 4개권역의 자치구는 물론 지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단체인 대학, 연구소, 문화동아리, 문화활동가 등과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거버넌스는 단순한 강좌나 기억의 공유 차원을 넘어서 주민 자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대학의 인문강좌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2. 정책제언

1) 행정협의회 차원의 통합적 운영 필요

- 자치구간 경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자치구 차원의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면 서부산권의 미래 발전은 퇴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기 제안된 통합축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구별 축제를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형 축제 개발 등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아울러 서부산개발국내에서 진행되는 과제이지만, 부산관광공사, 문화관광국, 자치구 문화원 등과의 실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추진조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협의회에 민간 참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면 함
 - 실제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은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나 제도마련은 행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활용 전략별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

- 가치 공유 기반의 자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지역, 사람 중심의 자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지역민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함
 - 주요 자산의 활용 및 자원화는 보존성, 유일성, 경제성, 확장성, 미래성을 기준으로 지역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 생태, 미래지향성, 자연친화성, 시민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장소 특화를 통해 공간 연계성 제고 및 장소성을 회복해야 함
 - 역사와 삶의 공존, 공생의 가치가 강조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과 함께 마을간 연대, 지역 협력,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한 (인문)문화적 접근이 강조됨
-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산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입체적인 기록화, 데이터 베이스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병행으로 지속 발굴해야 함
 - 관련 인력양성은 지역청년, 지역대학, 주민학습동아리 연계 등을 중심으로 접근 가능하며, 지역민의 지혜와 기억 보존 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활용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역산업 연계 관광산업 개발과 융복합 산업 연계는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역사와 공간에 얽힌 이야기의 스토리텔링화, 삶의 이야기 발굴, 지역 문화 콘텐츠화 등을 통한 접근이 강조됨

참고문헌

- 강동진. “문화유산을 활용한 풍요로운 일상의 삶” 국토 831 (2013): 22-30.
- 강연호. “디지털 시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의미와 방향”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12:2 (2011): 267-284.
- 금기용. 서울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마케팅 전략 연구. 서울연구원, 2014.
- 기윤환.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1.
- 김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김민. 수원화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브리프 NO.34. LH 토지주택연구원, 2017.
- 김영선. “마을에서 인문학하기 -마포구 성미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3:3 (2012): 120-148.
- 김영준·박경열.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김진형.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OSMU 가치실현 방안” 비교민속학 44:44 (2011): 275-317.
- 김형균 외. 피란수도 부산 건축·문화자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5.
-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 축제를 중심으로”

- 인문콘텐츠 8 (2006): 39-57.
- 박찬옥.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심승구. 역사 공간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도시 재생의 의미 -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5 (2012): 39-67.
- 오재환 외.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6.
- 이병민.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2016): 51-67.
- 이병민·김기덕. “한국형 지역재생 개념수립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방안 모색” 국토지리학회지 48:2 (2014): 289-298.
-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4.02.16.
- 최도석 외. 낙동강 하천유람선 및 수상레저스포츠 도입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2.
- 최석. “장소성에 입각한 하멜의 문화콘텐츠 자원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4 (2008): 137-146.
- 최혜실 외. 콘텐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신패러다임 구축으로서의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0.
- 한상우·박기연. 경남문화지도. 경남발전연구원, 2010.
- 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 Corporation. 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 (in French), The 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 Retrieved 24 April 2011.
- HABITAT III. Issue papers 4 - urban culture and heritage(not edited version 2.0). 2015.05.31.

Michael Dewing. Bill C-7: An Act to amend the Museums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Canadian Museum of History and to make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LEGISinfo, Parliament of Canad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4 March 2016, Retrieved 13 December 2013.

UNESCO. Culture Urban Future. 2016.

(신문 및 인터넷자료)

노해섭. 또 다른 희망, 순천시 ‘도시재생’. 2015.02.16. 아시아경제.

박정훈. 도시재생마을 수원 행궁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6.05.12. 오마이뉴스.

이주빈. 템즈강 페스티벌에서 한국의 ‘가짜 축제’를 떠올린다. 2013.09.21. 오마이뉴스.

천의현. 수원화성 낙후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정부 지원 예정. 2014.01.28. 중부일보.

“2030 Busan World Expo.” 부산광역시. 2017년 11월 2일 접속, <http://www.busan.go.kr/expo/index>.

“Canadian Museum of History.” 캐나다 역사 박물관. 2017년 09월 29일 접속, <http://www.historymuseum.ca>.

“Colorado River historical Society.” 콜로라도 강 역사 소사이 어티. 2017년 10월 02일 접속, <http://coloradoriverhistoricalsociety.org>.

“JAPAN Monthly Web Magazine.” 일본관광청. 2017년 09월

- 29일 접속, http://japan-magazine.jnto.go.jp/ko/1403_pilgrimage.html.
- “Mud Island River Park.” 머드 아일랜드 리버 파크. 2017년 10월 02일 접속, <http://www.mudisland.com>.
- “Tarka Trail Guide.”. 타르카 트레일 가이드. 2017년 09월 28일 접속, <http://www.tarkatrailguide.co.uk/>.
- “Totally thames 2018.” Totally thames 2018. 2017년 09월 28일 접속, <http://totallythames.org>.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7년 09월 29일 접속, <http://www.nnibr.re.kr>.
-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를 통합한 ‘2017 평창 윈터페스티벌’” 네이버 블로그. 2017년 10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leedan2/220884448584>.
- “미시시피 강.” 위키백과. 2017년 10월 02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8B%9C%EC%8B%9C%ED%94%BC_%EA%B0%95.
- “미시시피강.” 두산백과. 2017년 09월 26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461&cid=40942&categoryId=40507>.
- “바야흐로 지역특화문화콘텐츠 전성시대!”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2017년 10월 05일 접속, <http://koreancontent.kr/3089>.
-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희망제작소. 2014년 01월 15일, 2017년 11월 03일 접속, <http://www.makehope.org/?p=11074>.

“양림동 동개비 마켓 나들이.” 광주광역시 공식블로그 광주랑.

2016년 03월 19일, 2017년 10월 05일 접속,

<http://saygj.com/6760>.

“온다라 인문학 연구단.” 온다라 인문학 연구단 블로그. 2017년

10월 05일 접속, <http://blog.naver.com/jjondara>.

“요즘 듣는 팟캐스트 목록.” 네이버 블로그. 2017년 10월 25일

접속, http://blog.naver.com/ramie_me/221136985701.

“주민교육.” 순천도시재생지원센터. 2017년 10월 05일 접속,

<http://urc.sc.go.kr>.

“콜로라도 강.” 위키백과. 2017년 10월 02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A1>

[%9C%EB%9D%BC%EB%8F%84_%EA%B0%95](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A1%9C%EB%9D%BC%EB%8F%84_%EA%B0%95).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홈페이지.

모계나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헬로케릭터 홈페이지.

부록 :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시민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2016)를 통해 낙동강 유역의 역사, 문화적 기록과 서민 삶의 흔적 등 문화자산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의 후속 연구로 서부산권 지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인문문화자산의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 정체성 형성, 지역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조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해서서 설문응답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 담당연구원 : (재)부산발전연구원 경영사회연구실 오재환 실장, 주선옥 연구원
■ 조사 기관 : 동남리서치(Tel : 051-583-8050, Fax : 051-583-7030)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개념>

낙동강을 배경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시공간적 삶의 궤적을 기억하고 기록한 역사, 문학, 장소, 이야기 등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로 확장할 수 있는 자원과 자산
※ 공간적 범위 : 서부산권(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전역)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유형>

- ① 역사자산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산
- ② 장소자산 : 장소성을 지닌 공간 및 경관
- ③ 시설자산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 ④ 기억자산 :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행위·이야기 및 역사문화인물·커뮤니티
- ⑤ 생활자산 :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양식
- ⑥ 이미지자산 : 지역고유의 정체성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주거지역(구)	① 북구	② 사상구	③ 사하구	④ 강서구	
SQ4. 지역거주기간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미만	③ 20~30년 미만	④ 30년 이상	

I.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식

Q1_1. 귀하께서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지정도		전혀 알고 있지 않음	알고 있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역사자산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①	②	③	④	⑤
2) 장소자산	마을, 시장, 거리, 공원, 산림, 수환경, 농경지, 섬, 동굴, 보호수, 기타	①	②	③	④	⑤
3) 시설자산	주거, 생산·산업, 상업, 물류, 종교, 교육, 문화, 교통, 수리, 나루터 및 포구	①	②	③	④	⑤
4) 기억자산	(문화창작물)시, 소설, 대중가요, 영화, (인물)기업가, 독립운동가, 종교인, 교육인,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사회운동가, 기타, 대표가문, 공동체 등	①	②	③	④	⑤
5) 생활자산	설화, 민요·민속, 당제·당산, 생업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이미지자산	팔경 및 십경, 놀이 및 행사, 상징성	①	②	③	④	⑤

Q1_2. 귀하께서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 콘텐츠화 정도는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콘텐츠화 : 지역의 문화원형 혹은 자원을 반영·활용하여 생산, 상품화된 축제, 문화상품, 문화시설, 영상콘텐츠 등

매우 낮다 <----- 보통이다 ----->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_3. 다음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지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지역경제 활성화 (예: 문화자산의 콘텐츠화, 문화산업화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정체성 형성	①	②	③	④	⑤
4) 장소와 공간의 재창조	①	②	③	④	⑤
5) 지역민의 자긍심 유도	①	②	③	④	⑤
6) 지역공동체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Ⅱ.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Q2_1.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시의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① 보존정책 중심 ② 문화산업화 중심(예: 축제, 문화콘텐츠 등) ③ 지역재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중심(예: 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④ 공간문화화 중심(예: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등)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	---

Q2_2.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시의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사자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② 장소자산 (마을, 시장, 거리, 공원, 산림, 수환경, 농경지, 섬, 동굴, 보호수, 기타) ③ 시설자산 (주거, 생산·산업, 상업, 물류, 종교, 교육, 문화, 교통, 수리, 나루터 및 포구) ④ 기억자산 (문화창작물 : 시, 소설, 대중가요, 영화 / 인물 : 기업가, 독립운동가, 종교인, 교육인,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사회 운동가, 기타, 대표가문, 공동체 등) ⑤ 생활자산(설화, 민요·민속, 당제·당산, 생업활동) ⑥ 이미지자산(팔경 및 십경, 놀이 및 행사, 상징성)
--------	--

Q2_3.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시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방안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②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③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 ④ 서부산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 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⑥ 서부산권 지역민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⑦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서부산권 전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⑧ 기타()
--------	---

Q2_4. 향후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부산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산시 정책과제의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 (예: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지역 경제활성화 등)	①	②	③	④	⑤
2) 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특화 발전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정체성, 가치 발굴 및 확산	①	②	③	④	⑤
4) 관광자원화 (예: 생태관광코스 및 이야기형 투어 개발, 인프라 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콘텐츠화 (예: 스토리텔링 및 개발, 교육자료 개발, DB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주민 협력 사업 확대 (예: 지역공동체 회복, 마을 지속성 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7)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통합적 인문문화자산의 연계방안 모색 (예: 자치구간 공동사업,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9)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10) 해당자치구(북, 사상, 사하, 강서구)간 협력	①	②	③	④	⑤

Ⅲ.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Q3_1. 다음은 서부산권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의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서부산권은 젊다	①	②	③	④	⑤
2) 서부산권은 자연친화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서부산권은 현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서부산권은 국제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서부산권은 여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6) 서부산권은 미래지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서부산권은 투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서부산권은 품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서부산권은 친근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서부산권은 서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Q3_2. 다음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를 6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할 경우, 이에 동의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보존성 자산의 보존 가치, 훼손이나 왜곡의 정도 등을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2) 유일성 자산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성 자산의 상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4) 융합성	자산의 본래적 가치를 다른 분야나 영역으로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지 를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5) 미래성	역사성과 지역성을 갖고 미래발전 의 원동력이자 가치를 갖고 있는지 를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6) 생태성	공생, 공존의 가치 및 자산의 지속 가능한 생태성을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Q3_3. 다음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향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 사람 중심의 자산 발굴 및 활용 을 통한 정체성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장소와 공간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가치 증진	①	②	③	④	⑤
3) 지역경제 활성화	자산가치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Q3_4. 다음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질문입니
다. 우선 순위별로 5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 ■ 3순위 : _____ /

■ 4순위 : _____ / ■ 5순위 : _____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역사자산	장소자산	시설자산
1) 만덕사지	18) 구포시장	37) 구포은행(현 우리은행)
2) 장우석 기념비	19) 구포만세거리	38) 감동창
3) 구포북설비	20) 만덕고개	39) 구포사립구명학교
4) 운수사 대웅전	21) 화명수목원	40) 북구문화예술플랫폼B
5) 냉정샘터	22) 덕포 시장	41) 옛 구포다리
6) 물은대	23) 자립김천동 삼락동 엄궁동	42) 사상생활사박물관
7) 다대포 객사	24) 산림생태공원	43) 사상인디스테이션
8) 윤공단	25) 감천문화마을	44) 감천화력발전소
9) 다대포 침사영	26) 하단 5일 상설시장	45) 낙동강하구예코센터
10) 다대포진	27) 사하 선셋로드	46) 아미산전망대
11) 가덕도 척화비	28) 에덴공원	47) 현대미술관
12) 이순신 장군 전적비	29)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48) 염전(신호도, 녹산, 명지)
13) 가덕도지성터	30) 을숙도	49) 녹동민속교육박물관
14) 가덕도 성북왜성터	31) 을숙도생태공원	50) 녹산수문
15) 가덕도 왜성지성터	32) 송화산 역사군락	51) 대저수문
16) 외양포포대	33) 덕두창	52) 낙동강 제방
17) 가덕도등대	34) 장거마을 문화거리	
	35) 대저생태공원	
	36) 맥도생태공원	
기억자산	생활자산	이미지자산
윤상은(기업가, 구포저축 53) 조합회장, 구포은행, 부산 구포사립구명학교, 부산 대학교 설립 공로)	60) 만덕 고개와 빼빼 영감	69)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장우석(개화기 선각자, 54) 구포사립구명학교, 구포 은행 설립)	61) 구포 장타령	70) 구포국수
박필희(기업가, 신라고무 55) 공업사)	62) 구포 선창 노래	71) 사상팔경
박기종(기업가, 부하철도 56) 회사)	63) 모랫산 운수왕 무비배위	72) 사상강변축제
손지태(민속학자, 신민족 57) 초의 사관 제창)	64) 고깃줄공의 노래	73) 사상전통 달집놀이
김정환(소설가, 모래톱이 58) 야기, 수라도, 독메 등)	65) 갈대엽	74) 갈밭
크수현(음악가, 국민가 59) 목 그네)	66) 다대포후리소리	75) 재첩
	67) 가락오광대	76) 갯강
	68) 가덕도 송어잡이	77) 다대팔경
		78) 윤흥신/정운 장군 향사
		79) 다대포 어항문화축제
		80) 하단포구 용어축제
		81) 낙조
		82) 갈대
		83) 포구 및 나루터
		84) 강서팔경
		85) 명지시장 전어축제
		86) 가덕송어들이축제
		87) 낙동강 30리 빛꽃 축 제
		88) 대저 토마토축제
		89) 낙동강 유채꽃 축제
		90) 가덕도 대구 축제
		91) 대저토마토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2016)를 통해 낙동강 유역의 역사, 문화적 기록과 서민 삶의 흔적 등 문화자산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의 후속 연구로 서부산권 지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인문문화자산의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 정체성 형성, 지역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조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셔서 설문응답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 담당연구원 : (재)부산발전연구원 경영사회연구실 오재환 실장, 주선옥 연구원
■ 조사 기관 : 동남리서치(Tel : 051-583-8050, Fax : 051-583-7030)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개념>

낙동강을 배경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시공간적 삶의 궤적을 기억하고 기록한 역사, 문학, 장소, 이야기 등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로 확장할 수 있는 자원과 자산
※ 공간적 범위 : 서부산권(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전역)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유형>

- ① 역사자산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산
- ② 장소자산 : 장소성을 지닌 공간 및 경관
- ③ 시설자산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 ④ 기억자산 :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행위·이야기 및 역사문화인물·커뮤니티
- ⑤ 생활자산 :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양식
- ⑥ 이미지자산 : 지역고유의 정체성

응답자 특성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주거지역(구)	① 공공기관 ② 민간기관 ③ 관련 협회/단체 ④ 대학교수 ⑤ 연구원 ⑥ 기타(구체적으로:)	
SQ4. 지역거주기간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I.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인식

Q1_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에 대한 1) 현재 발굴 정도, 2) 자산 활용정도, 3) 문화콘텐츠 가능성을 평가하여 점수(1~7점)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매우 낮다	←			보통 이다	→	매우 높다
역사 자산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1) 현재 발굴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산 활용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소 자산	마을, 시장, 거리, 공원, 산림, 농경, 수지, 습지, 동굴, 보호수, 기타	1) 현재 발굴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산 활용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설 자산	주거, 생산·산림, 농·상업, 교육, 문화, 문화, 교통, 수리, 포 나루터 및 기타	1) 현재 발굴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산 활용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억 자산	(문화창작물) 시, 소설, 대중 가요, 영화, 게임, 가 (인물) 기업가, 운동 선수, 종교인, 교육 자, 음악가, 미술가, 가, 기타, 대표 가문, 공동체 등	1) 현재 발굴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산 활용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 자산	설화, 민요·민 속, 단체·당산, 생업활동	1) 현재 발굴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산 활용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미지 자산	팔경이 및 십경, 불이 및 십행사, 상징성	1) 현재 발굴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산 활용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_2. 귀하께서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문화 콘텐츠화 정도는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콘텐츠화 : 지역의 문화원형 혹은 자원을 반영·활용하여 생산, 상품화된 축제, 문화상품, 문화시설, 영상콘텐츠 등

매우 낮다 <----- 보통이다 ----->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인식

Q2_1.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시의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① 보존정책 중심
	② 문화산업화 중심(예: 축제, 문화콘텐츠 등)
	③ 지역재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중심(예: 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④ 공간문화화 중심(예: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등)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Q2_2.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시의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① 역사자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② 장소자산(마을, 시장, 거리, 공원, 산림, 수환경, 농경지, 섬, 동굴, 보호수, 기타) ③ 시설자산(주거, 생산·산업, 상업, 물류, 종교, 교육, 문화, 교통, 수리, 나루터 및 포구) ④ 기억자산(문화창작물 : 시, 소설, 대중가요, 영화 / 인물 : 기업가, 독립운동가, 종교인, 교육인,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사회운동가, 기타, 대표가문, 공동체 등) ⑤ 생활자산(설화, 민요·민속, 당제·당산, 생업활동) ⑥ 이미지자산(팔경 및 십경, 놀이 및 행사, 상징성)
--------	--

Q2_3. 귀하께서는 현재 부산시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방안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보 기	①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②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③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 ④ 서부산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 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⑥ 서부산권 지역민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⑦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서부산권 전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⑧ 기타()
--------	---

Q2_4. 향후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부산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산시 정책과제의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 (예: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지역 경제활성화 등)	①	②	③	④	⑤
2) 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특화 발전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정체성, 가치 발굴 및 확산	①	②	③	④	⑤
4) 관광자원화 (예: 생태관광코스 및 이야기형 투어 개발, 인프라 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콘텐츠화 (예: 스토리텔링 및 개발, 교육자료 개발, DB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주민 협력 사업 확대 (예: 지역공동체 회복, 마을 지속성 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7) 인문학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통합적 인문문화자산의 연계방안 모색 (예: 자치구간 공동사업,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9)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10) 해당자치구(북, 사상, 사하, 강서구)간 협력	①	②	③	④	⑤

Ⅲ.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Q3_1. 다음은 서부산권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의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서부산권은 젊다	①	②	③	④	⑤
2) 서부산권은 자연친화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서부산권은 현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서부산권은 국제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서부산권은 여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6) 서부산권은 미래지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서부산권은 투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서부산권은 품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서부산권은 친근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서부산권은 서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Q3_2. 다음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를 6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할 경우, 이에 동의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가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보존성 자산의 보존 가치, 훼손이나 왜곡의 정도 등을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2) 유일성 자산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성 자산의 상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4) 융합성 자산의 본래적 가치를 다른 분야나 영역으로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5) 미래성 역사성과 지역성을 갖고 미래발전의 원동력이자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6) 생태성 공생, 공존의 가치 및 자산의 지속 가능한 생태성을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Q3_3. 다음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활용 가능성에 점수(1~10점)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가능성 방향 및 척도>

활 용 가 능 성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 사람 중심의 자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정체성 구축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장소와 공간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가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자산가치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차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 가능성		
		지역정체성 확보 (1~10점)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1~10점)	지역경제 활성화 (1~10점)
역 사 자 산	1) 만덕사지			
	2) 장우석 기념비			
	3) 구포복설비			
	4) 운수사 대웅전			
	5) 냉정샘터			
	6) 물운대			
	7) 다대포 객사			
	8) 윤공단			
	9) 다대포 첨사영			
	10) 다대포진			
	11) 가덕도 척화비			
	12) 이순신 장군 전적비			
	13) 가덕진성 터			
	14) 가덕도 성북왜성 터			
	15) 가덕도 왜성 지성 터			
	16) 외양포 포대			
	17) 가덕도등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 가능성		
		지역정체성 확보 (1~10점)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1~10점)	지역경제 활성화 (1~10점)
장 소 자 산	18) 구포시장			
	19) 구포만세거리			
	20) 만덕고개			
	21) 화명수목원			
	22) 덕포 시장			
	23) 재첩길(감전동, 삼락동, 엄궁동)			
	24) 삼락생태공원			
	25) 감천문화마을			
	26) 하단 5일 상설시장			
	27) 사하 선셋로드			
	28) 에덴공원			
	29)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30) 을숙도			
	31) 을숙도생태공원			
	32) 승학산 역사군락			
	33) 덕두장			
	34) 정거마을 문화거리			
	35) 대저생태공원			
	36) 맥도생태공원			
시 설 자 산	37) 구포은행(현 우리은행)			
	38) 감동창			
	39) 구포사립구명학교			
	40) 북구문화예술플랫폼B			
	41) 옛 구포다리			
	42) 사상생활사박물관			
	43) 사상인디스테이션			
	44) 감천화력발전소			
	45) 낙동강하구예코센터			
	46) 아미산전망대			
	47) 현대미술관			
	48) 염전(신호도, 녹산, 명지)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 가능성		
		지역정체성 확보 (1~10점)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1~10점)	지역경제 활성화 (1~10점)
	49) 록봉민속교육박물관			
	50) 녹산수문			
	51) 대저수문			
	52) 낙동강 제방			
기 역 자 산	윤상은(기업가, 구포저축 주식회사, 53) 구포은행, 구포사립구명학교, 부산 대학교 설립 공로)			
	54) 장우석(개화기 선각자, 구포사립구 명학교, 구포은행 설립)			
	55) 박필희(기업가, 신라고무공업사)			
	56) 박기종(기업가, 부하철도회사)			
	57) 손진태(민속학자, 신민족주의 사관 제창)			
	58) 김정한(소설가, 모래톱이야기, 수라 도, 독메 등)			
	59) 금수현(음악가, 국민 가곡 ‘그네’)			
생 활 자 산	60) 만덕 고개와 뻘뻘 영감			
	61) 구포 장타령			
	62) 구포 선창 노래			
	63) 모라 뒷산 운수사와 두꺼비 바위			
	64) 고딧줄꾼의 노래			
	65) 갈대업			
	66) 다대포후리소리			
	67) 가락오광대			
이 미 지 자 산	68) 가덕도 송어잡이			
	69)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70) 구포국수			
	71) 사상팔경			
	72) 사상강변축제			
	73) 사상전통 달집놀이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 가능성		
	지역정체성 확보 (1~10점)	지역재생 문화환경 구축 (1~10점)	지역경제 활성화 (1~10점)
74) 깔발			
75) 재첩			
76) 셋강			
77) 다대팔경			
78) 윤흥신/정운 장군 향사			
79) 다대포 어항문화축제			
80) 하단포구 웅어축제			
81) 낙조			
82) 갈대			
83) 포구 및 나루터			
84) 강서팔경			
85) 명지시장 전어축제			
86) 가덕송어들이축제			
87)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			
88) 대저 토마토축제			
89) 낙동강 유채꽃 축제			
90) 가덕도 대구 축제			
91) 대저토마토			

Q3_4. 앞의 문항 Q3_3에서 언급한 91가지 자산 중 귀하께서는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_3의 보기 중에서 우선 순위별로 5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문화브랜드 : 서부산권에만 있는 지역색이 뚜렷한 문화유산 및 자연자원, 문화 공간으로 향후 관광브랜드화 될 수 있는 자원

■ 1순위 : _____ / ■ 2순위 : _____ / ■ 3순위 : _____ /
■ 4순위 : _____ / ■ 5순위 : _____

Q3_5. 서부산권의 정체성을 살린 4개구 통합축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찬성한다 ⑤ 적극 찬성한다

Q3_6. (Q3_5에서 ④, ⑤ 응답자만) 찬성하신다면, 어떤 주제나 테마로 축제가 개최되었으면 하는지 1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낙동강 ② 생태 ③ 꽃 ④ 지역 특산물
⑤ 음악 ⑥ 이벤트 형 ⑦ 지역산업 ⑧ 기타()

Q3_7. (Q3_5에서 ①, ② 응답자만)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금도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② 구별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강화했으면 한다
③ 서부산권만의 축제를 통한 정체성 확보가 어렵다
④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⑤ 자치구간 통합 축제 개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⑥ 기타()

Q3_8.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활용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본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현안연구 2018-03-797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의 활용 방안

저 자 오재환 · 임호 · 박경옥

발행인 김민수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전화 (051)860-8850, FAX (051)860-8619

Homepage : <http://www.bdi.re.kr>

인쇄처 가꿈복지 ☎ (051)862-6090, FAX (051)862-8091

ISBN 978-89-5896-797-2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8009026)